

# 의열단원 박재혁(朴載赫)의 생애와 부산경찰서 투탄(投彈)\*

박철규\*\*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출생과 학창시절
- III. 사회진출과 부산경찰서 투탄
- IV. 체포 및 재판과정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박재혁(朴載赫)은 1895년 5월 17일 범일동 183번지에서 독자로 태어났다. 15세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여동생과 생활했다. 1911년 3월 22일 부산진 사립영육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3월 22일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제4회로 졸업했다.

박재혁은 부산공립상업학교 재학 중에 최천택, 김병태, 박홍규 등과 함께 『동국역사』를 비밀리에 등사하여 배포했다. 3학년 때에는 최천택, 김병태, 박홍규, 오재영 등과 구세단(救世團)을 결성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단보를 발행하여 부산

\* 부산시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2018. 10.30.) 발표원고를 수정한 것임.

\*\* 명지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 nhkpck@naver.com

과 경상남도 일대에 배포했다.

박재혁은 1917년 6월 부산을 떠나 3년 이상 상해와 싱가포르 등지를 왕래하면서 인삼 등의 무역업에 종사했다. 동시에 동지들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신심을 다져 투신하기로 결심했다.

부산경찰서가 타격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당시 의열단이 3.1운동 이후 기존의 독립운동노선에 방향전환을 선언하고 조직됐는데,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 계획이 1920년 6월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관련자 전원이 체포됐다. 이에 의열단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어 이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 요구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관문이며 전형적인 식민도시로 개발됐으며, 제2의 오사카로 불렸기 때문에 상징성이 컸다.

거사 준비 과정에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橋本秀平)가 고서적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역업을 하던 경험을 살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했다.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경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공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시모토 서장의 오른쪽 가까이 접근하자, 서장이 짐무를 멈추고 그쪽으로 몸을 돌리려는 찰나, 자신이 의열단임을 밝히고 투탄했다. 당시 하시모토 서장은 경상을 입었다. 박재혁도 부상을 입어 탈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재혁은 부산지법의 1심부터 1921년 3월 31일 진행된 경성고법의 3심까지 일관되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박재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원심이 파기되고 박재혁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박재혁은 1921년 3월 31일 3심인 경성고등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박재혁은 체포된 후 고문과 폭탄 투척 당시의 상처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폐병까지 얻게 되었지만 기개는 꺾이지 않았다. 1921년 5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대구 감옥에서 사망했다.

주제어 : 박재혁, 최천택, 오재영, 동국역사, 구세단, 의열단, 부산경찰서

## I. 머리말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두 달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독립만세 시위는 일제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5만여 명이 검거 투옥되고, 7천여 명 이상이 희생됐다.

이렇듯 엄청난 희생을 치룬 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직접 타격을 포함한 의열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중국, 동북, 노령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독립운동 단체들에 의해 실행됐다. 의열투쟁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이후 학계에서 사용된 것이다. ‘의열’이라는 말은 옛 문헌의 ‘천추의열(千秋義烈)’이라는 데에서 따왔다.<sup>1)</sup>

의열투쟁은 개인적인, 또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암살과 파괴를 주로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투쟁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19년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로, 이 선언서에서는 ‘육탄혈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1920년 1월 ‘국무원 포고 제1호’를 통해 대적(對敵) 방법의 하나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작탄 등으로써 적괴 및 창귀를 격살하며, 혹은 그 영조물을 파괴케 함’을 제시했다.

또한 『독립신문』에서는 ‘7가살(可殺)론’을 제기하여, 적괴(총독, 정무총감 등), 매국적(이완용, 송병준, 민원식 등), 창귀(고등경찰, 밀정 등), 친일 부호, 적의 관리된 자, 불량배(독립운동을 해치거나 독립운동을 빙자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자), 모반자(독립운동가 중 배반자) 등을 처단 대상에 포함시켰다.<sup>2)</sup>

1) 독립유공자기금운영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의열투쟁사』, 1973, 312쪽. 김영범, 『의열투쟁 I -1920년대』(한국의 독립운동사 2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9, 4쪽.

2) 『독립신문』 1920. 2. 5.

의열단(義烈團)의 경우에도 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수뇌, 대만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적탐(敵探), 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紳) 등은 암살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중요기관 등은 파괴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의열투쟁은 투쟁 대상을 적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명확히 제한했다.

3.1독립만세운동 직후의 의열투쟁으로는 27결사대 사건, 구국모험단 사건, 강우규의 서울역 의거, 철혈광복단의 간도 의거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의열투쟁은 의열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열단은 1919년 11월 10일 만주 길림 화성(華盛)여관에서, 황상규의 지도와 김원봉의 주도로 단원 가운데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됐다고 알려져 있다.<sup>3)</sup>

의열단이란 이름은 ‘정의(正義)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에서 유래됐다. 3.1독립만세운동 이후 논의되고 있던 여러 독립운동노선 가운데, 외교론과 실력양성론 등을 부정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암살과 파괴를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조직이 의열단이었다. 창립단원의 절반이상이 경남 밀양 태생으로, 대부분 밀양 동화학교 출신이었다.<sup>4)</sup>

의열단의 초기 투쟁은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 기도사건(일명 ‘밀양 진영 폭탄사건’ 1920.3.~5.), 박재혁(朴載赫)의 부산경찰서 투탄(投彈, 1920.9.14), 최수봉(崔壽鳳)의 밀양경찰서 투탄(1920.12.27.)이 있다.

1921년 들어 의열단의 투쟁은 더욱 본격화됐다.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진입 투탄(1921.9.12), 김익상 등의 황포탄 육군대장 저격(1922.3.

3) 김영범, 앞의 책, 2009, 135쪽. 보다 자세한 것은 김영범, 『의열단 창립단원 문제와 제1차 국내거사기획의 실패 전말-13인설 재검토와 구영필 문제의 숙고를 중심으로』(『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8집, 2017) 참조.

4) 김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11.

28),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1923.1.12), 제2차 국내거사 기도(일명 황옥 사건, 1923.3.15), 제3차 대규모 광역거사 추진(1923년 하반기), 김지섭의 일본제국의회 습격기도와 황궁입구 이중교 투탄(1924.1.5), 나석주의 동척과 식산은행 투탄(1926.12.28) 등이 전개됐다.<sup>5)</sup>

의열단이 최초로 성공한 투쟁은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이다.

의열단원 가운데 부산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의 활동과 관련된 인물은 박재혁(朴載赫), 최천택(崔天澤), 오재영(吳載泳, 吳澤), 김병태(金鉸泰), 김영주(金永柱), 김인태(金仁泰), 김기득(金奇得), 왕치덕(王致德), 박창수(朴昌守), 백용수(白龍水), 김작치(金作致), 강필문(姜弼文), 문시환(文時煥), 박문희(朴文嬉), 박차정(朴次貞), 최장학(崔章學), 배중세(裨重世), 이동화, 장건상(張建相) 등 19여명이다.<sup>6)</sup>

그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投彈)에 대해 소개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 『공적조서』, 『도보독립혈사(圖譜獨立血史)4283』, 『부산의古今(古今)1965』, 『독립운동사제7권-의열투쟁사(1973)』, 『경남 3.1운동사(1979)』, 『부산출신독립투사집(1982)』, 『어둠을 밝힌 사람들(1983)』, 『부산독립운동사(1996)』,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2004)』, 두산백과, 민족문화대백과, 부산 동구청,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김삼웅, 김도형의 글과 김승, 전성현의 논문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당시 같이 활동한 친구이자 동지인 최천택의 ‘회고’와 오재영(오택)의 ‘유고’이다. 다만 이 두 자료에는 부산공립상업학교와 지역선배들과의 교유관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데다, 박재혁의 캐릭터를 연상할 수 있는 서술이 전혀 없어 아쉽다.

5) 자세한 것은 김영범, 앞의 책, 2009, 147쪽~195쪽 참조.

6) 이들 인물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공훈록』과 『공적조서』, 부산광역시,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Ⅰ)·(Ⅱ), 2004.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등을 참고.

『부산의 고금(1965)』2편 해방 전후의 사건에서 「부산경찰서 폭탄 사건」, 제3편 잊지 못할 사람들에서 「일제에 항거한 야인 최천택」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최천택이 직접 작성해서 남겼다는 「일제하의 독립투쟁기」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국역사 배포 건’은 있으나 ‘광복단’이나 ‘구세단’에 대한 서술은 빠져있다.

『어둠을 밝힌 사람들(1983)』에는 「외롭게 살다 간 항일투사 최천택」만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 오재영(오택)과 박재혁은 서술대상이 아니어서인지 항목자체가 빠져 있다.

『부산출신독립투사집(1982)』에는 오택 71쪽, 박재혁의사 21쪽, 최천택 5쪽, 장건상 9쪽으로 서술되어 있다. 박재혁에 대해서는 오택의 「유고」와 오택의 부인이자 고종형수인 김정수(당 85), 백형 김이근(당77)의 진술, 『부산일보』 <호외>에 의거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오재영(오택)에 대해서는 그의 「유고」를 실었다. 최천택에 대해서는 ‘죽천’의 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5쪽으로 지나치게 소략하다. 또한 박재혁과 오택 부분에서 ‘동국역사 배포 건’이 빠져있으며, 오택의 ‘구세단’ 서술에서는 최천택이 빠져있는데다, 체포 구금자 명단에서도 빠져있다.<sup>7)</sup>

이상의 저작들은 저자나 기획자의 의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식적인 면만 비교해도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된다. 그런데다 기억에 의존해서인지 팩트 자체도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곳도 더러 있다.

그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을 다룬 대다수의 글에는 사건명칭, 부친이름, 생가주소, 동국역사배포와 구세단의 활동시기, 의열단 가입과 귀국시점, 투탄시기, 폭탄의 종류, 폭탄 보관 장소, 투탄 후 희생상황, 재판과정과 양형의 변동사유, 사망일자 등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못한

7) 이 책의 발행인은 박재혁의사비건립동지회이다. 편저자인 김삼근은 1910년 생으로 좌천재에서 한문수학, 부산공립상업학교 동창회 상임이사, 1944년까지 삼영고무공업사 경영, 1982년 모선(慕先) 동지회장을 역임했다.

데다 불일치한 점이 다소 발견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박재혁의 제적부나 학적부, 당시 신문이나 행형기록, 일제경찰 자료 등을 제대로 확인, 검토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글 등을 요약 하거나 카피, 전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훈전자사료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립운동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때, 기관에서 요약해놓은 주제나 내용만 살펴보고, 원자료 검토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가치가 애국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라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너무나 과도한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 등이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때로는 팩트를 외면하거나, 때로는 과장해가면서 종합, 추존, 선양하게 되는 것이다.

박재혁에 대한 그간의 오류나 불일치한 점 가운데 부친이름, 생가주소, 사망일자 등에 대한 것은 이미 『국제신문』에서 지적한바 있다.<sup>8)</sup>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한 설명에서, 불일치와 오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곧 발간된다는 ‘박재혁 평전’에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와 오류가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박재혁의 친구이자 동지이면서 투탄 관련자인 오재영(오택)의 『유고』와 최천택의 ‘회고’적 서술을 비교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일제 고등경찰자료와 부산일보, 매일신보 등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인물 연구의 기본자료인 박재혁과 이치수의 제적부와 학적부, 최천택의 아들 최철의 인터뷰, 『초량의 언덕』, 부산지법, 대구복심과 경성 고등법원의 판결문 등 새롭게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정리해 보겠다.<sup>9)</sup>

8) 『국제신문』 2018. 5. 3.

그런데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한 대개의 글들이 각주나 근거를 거의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류나 불일치에 대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적한 뒤, 바로잡은 사실만을 정리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박재혁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 출생과 일찍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의 단편을 살펴보겠다. 또한 부산공립상업학교(이하 부상) 시절의 활동, 동국역사배포와 비밀결사인 구세단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다음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진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부산을 떠나 상해, 싱가포르 등 국외에서의 활동과 의열단 가입, 부산경찰서 투탄 준비과정을 검토한 다음, 투탄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글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체포 및 조사과정과 3심에 걸쳐 진행된 재판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하여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박재혁을 재조명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출생과 학창시절

### 1. 출생과 항일의식의 형성

박재혁(朴載赫)은<sup>10)</sup>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895년 5월 17일 부산 범일동 183번지에서 밀양박씨 희선(朴喜善)과 경주이씨 치수(李致守)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sup>11)</sup> 박

9) 박재혁의 <제적부>와 <학적부>는 유족인 김정은의 도움을 받았으며, 박재혁 관련 기초자료는 개성고등학교 역사관 노상만 관장의 도움을 받았다.

10) 참고로 『매일신보』 등 일부 자료에서는 朴載赫과 朴在赫을 혼용하고 있다. 誤植이거나 전보로 발송되는 기사송과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일 수 있다.

11) 박재혁 <제적등본> 및 <제적부>.



재혁의 부모는 1892년 결혼했다.

부친 박희선의 제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본향 등을 알 수 없다. 또한 생계수단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를 세세청빈한사(世世淸貧寒士)로 표현한 점과<sup>12)</sup> 박재혁에게 근대 교육을 시키고, 국채보상모금에 참여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개명(開明)된 사람으로 보인다. 모친 이치수는 이호근(李浩根)과 김유금(金有今)의 장녀로 1873년 8월 7일 출생했다(1949 망, 당 76). 결혼 당시에는 범일동에 살고 있었다.<sup>13)</sup>

그런데 그간 부친 이름이 박희선(朴喜善)인데, 1946년 『민주중보』, 1982년 『부산출신독립투사집』을 비롯한 대다수의 글에서는 박광선(朴光善)으로 소개됐다.<sup>14)</sup> 물론 일상에서 사용했거나 이명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인물연구의 기본이 되는 ‘제적부’를 확인해보지 않아, 본명이나 호적상에는 박희선이라고 지적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박재혁의 ‘제적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인지 생가지소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재혁의 본적은 범일동 183번지인데, 1919년 6월 27일 범일동 550번지로 이거(移居)해서 본적을 정정(訂正)했다.<sup>15)</sup> 또한 사건 당일 부산일보 <호외> 이후 투탄을 최초 보도한 『매일신보』 1920년 10월 5일자에도 본적이 183번지로 기재되어 있다.<sup>16)</sup>

박재혁의 현주소는 『매일신보』 1920년 10월 5일자에는 범일동 335번지로 보도 됐다.<sup>17)</sup> 그런데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과 1921년 3월

12) 김삼근(金三根)편저, 『박재혁의사』, 『부산출신독립투사집』, 태화인쇄사, 1982, 56쪽.  
 13) 박재혁 <제적등본> 및 <제적부>.  
 14) 김삼근편저, 앞의 책, 56쪽. 『민주중보』 1946년 3월 1일자에는 2월 28일 김원봉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박재혁을 추도한 사실, 박재혁의 모친인 이치수의 소감, 박재혁, 최천택, 이치수의 사진, 박재혁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다.  
 15) 박재혁의 <제적부>  
 16) 『매일신보』 1920. 10. 5. 박재혁의 여동생인 박명진의 일신여학교 학적부에는 본적이 범일동 138번지로 되어 있다. 183번지의 誤記로 보인다(박명진 <학적부>, 안덕자 소장).

31일 경성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범일동 354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시점에 이 주소로 이사했다.<sup>18)</sup> 한편 여동생 박명진의 일신여학교 학적부상의 주소는 복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sup>19)</sup>

박재혁이 출생한 범일동은 좌천동과 부산진성의 안팎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인 마을로 기와집이 거의 없고 대개 초가였다. 개항이후 부산항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성화 되자 조선인들이 대거 이곳으로 몰려와 살기 시작했다.<sup>20)</sup>

박재혁이 출생한 그해 10월 8일에는 을미사변(乙未事變, 조선왕후 시해사건)이 발생했으며, 11월 15일에는 단발령이 내려지고 국왕도 단발했다. 이에 ‘을미의병’이 전개됐는데, 노응규가 주도한 진주의병진과 김해 민들은 양일간에 걸쳐 김해평야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sup>21)</sup>

박재혁이 11살 무렵인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소식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을사의병’이 발발했다.<sup>22)</sup>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은 을사늑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일본의 흥계를 통렬히 공박했다. 정공단(鄭公壇)에 설치된 육영재(育英齋) 등에서는 한문선생과 유지들도 통탄했다.<sup>23)</sup>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서당학생들도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공

17) 『매일신보』 1920. 10. 5.

18) 『부산경찰서폭파사건』 대구복심 1921년 2월 14일, 사상월보 제1권 제5호, 『중대사건판결집 上』, 공훈전자자료관(대구복심 주문과 이유 게재), 『피고인 朴載赫 大正10년 刑上제44호』, 1921년 3월 31일 고등법원(高等法院), 『大正10년3월 형사재판서원본』.

19) 박명진 일신여학교 <학적부>, 장로교 소속인 박명진은 1927년 3월 22일 일신여학교를 졸업했다.

20) 전성현, 앞의 논문, 2011, 133쪽~134쪽.

21)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연표』(『부산민주운동사』,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22) 1907 군대해산 이후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참여한 ‘정미의병’이 발발한다.

23) 박원표(朴元杓), 『일제에 항거한 야인 최천택』, 『부산의古今』, 현대출판사, 1965, 142쪽. 박원표(1910.~1986, 1931년 부산공립상업학교 졸업)는 최천택이 해방 수년

분했으며, 이와 같은 일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발생했던 일이다.

박재혁이 13살 때인 1907년 1월 1일(음력 1906년 11월 17일), 의병장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사망했다. 최익현의 영구(靈柩)가 부산항에 도착하자 수많은 항민들이 이를 맞았다. 상무사(商務社)원들은<sup>24)</sup> 비단에 ‘춘추대의 일월고충(春秋大義 日月高忠)’이란 만장을 들고, 큰 상여를 준비하여 영구를 맞이했다. 동래의 기생들도 만장을 지어 통곡했고, 범어사 스님들도 치전(致奠)을 올렸다. 부산항의 과부들도 ‘대감의 제수는 일본인 차에 실을 수 없다’고 항의 하면서 성복(成服)했다고 전해진다.<sup>25)</sup>

당시 행상(行喪)이 주례를 통과할 때에는 호상객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운구는 각 동리에서 맡았다. 박재혁의 동지인 오재영(오택)도 만장을 들고 구포까지 따라갔으며,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서 최익현의 충성 담을 들었다 한다.<sup>26)</sup> 이렇듯 형식은 애도였지만 내용은 항일시 위였다.

박재혁이 어린 시절부터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개명된 부친의 영향과 부산의 지역적 특성, 역사의 소용돌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즉 개명된 부친으로부터 을미사변이나 단발령, 을사늑약 등의 부당성을, 서당의 선생님에게서는 일본의 한국 병탄 등에 대해 듣고 자랐다.

---

후 모 일간신문의 청탁을 받고 썼던 『일제하의 독립투쟁기』의 원고가 미발표된 채 친지 金權泰 손에 보존되어 있음을 최근 발견해서 여기에 옮긴다고 밝혔다.

- 24) 대한제국시기, 등짐장수와 봇짐방수를 거느려 다스리던 관청, 광무3년에 상리국을 고친 것이다.
- 25)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독립운동사』, 1996, 23쪽. 독립유공자기금운영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의열투쟁사』, 1973, 166쪽.
- 26) 김삼근편저, 『오택』, 『부산출신독립투사집』, 태화인쇄사, 1982, 82쪽. 이 책의 80쪽~138쪽까지는 오택의 『유고』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좌천동 소재 ‘임진왜란’ 때 부산진 전투에서 순절한 선열들을 기리는 제단인 정공단(鄭公壇)<sup>27)</sup> 존재와 영향, 최익현의 운구행렬 시위를 목격한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번두리로 밀려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형성됐다. 이와 같은 의식은 학연을 통해 더욱 성장됐다.

한편 1907년 부산진에 육영학교가 설립됐다.<sup>28)</sup> 박재혁은 사립육영학교(현 부산진초등학교)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는 원래 부산진 유지들이 정공단 내에 설치 운영하던 서당 육영재를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 1908년 사립육영학교로 개편한 것이다.<sup>29)</sup> 이 학교의 경비는 우시장의 구문(口文)으로 충당했다.

부산진사립육영학교는 1909년 4월 대한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11년 5월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됐다.<sup>30)</sup> 1909년 좌천동의 유지 서석주 등이 설립한 좌천보통학교도 이 학교에 병합됐다.<sup>31)</sup>

박재혁, 최천택(崔天澤), 김인태(金仁泰), 김병태(金鉉泰), 전영호(田永昊), 전성호(田性昊), 김영주(金永柱), 백용수(白龍水) 등은 이 학교를 같이 다녔다.<sup>32)</sup>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됐을 때 동래, 부산에서는 여성들이 부산향 좌천리 감선의연부인회, 단연 동맹부인회, 영도 국채보상부인회를 조직해서 호응했다. 부산지방에서 이 운동의 모금에 참여한 건수는 『대

27) 안덕자는 박재혁과 그 친구들이 수시로 정공단에 참배하면서 항일의지와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안덕자, 『박재혁 - 적의심장에 폭탄을 던져라』, 호밀밭, 2018).

28) 박원표, 『일제에 항거한 야인 최천택』, 앞의 책, 142쪽.

29) 전성현, 앞의 논문, 2011, 134쪽. 김승, 앞의 논문, 2007.

30) 김도형, 『박재혁-부산경찰서 파괴』,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2년 2월

31) 『대한매일신보』 1909. 1. 15. 『대한매일신보』 1910. 6. 29.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독립운동사』, 1996, 28쪽~29쪽 재인용.

32) 부산일본사, 『외롭게 살다간 항일투사 소정 최천택』, 『어둠을 밝힌 사람들』, 1983, 177쪽. 『부산일보』, 2017. 11. 23.

한때일신보』에 따르면 모두 41건이다. 이 가운데 좌천, 범일지역이 13건으로 가장 많이 참가했는데, 특히 부산육영학교에서는 교장 김상하(金庠河) 외 75명이 참여했다.<sup>33)</sup>

모금에 참여한 70여명의 학생 중 박재혁 외에 최천택, 김영주, 백용수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은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의 연루자였다.<sup>34)</sup> 이처럼 어릴 때부터 교분이 있었던 박재혁과 그 친구들은 민족의식이 함양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9년은 박재혁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겹친 해였다. 1월 11일에는 여동생 박명진(朴明振)이 출생하고,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아버지 박희선이 사망했다. 이후 모친은 샴바느질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켰다 한다.<sup>35)</sup> 이때부터 박재혁은 장남으로서 가족부양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 이듬해 1910년에는 최천택의 부친 최차구(崔此球)도 사망했다.<sup>36)</sup>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독자였던 두 사람의 친밀감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최천택은 후일 박명진이 일신여학교 다닐 때 보증인으로 나선다.<sup>37)</sup>

또한 8.15해방 직후 박재혁의 모친 이치수까지 모시고 있었다.<sup>38)</sup> 박명진은 오빠와 소정은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로, 같이 외동아들인 데다 생각하는 것마저 같았다고 한다.<sup>39)</sup>

3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1989, 900쪽-901쪽 재인용.

34) 『부산일보』 2017. 11. 23.

35) 김승, 앞의 논문 외 대부분의 글.

36)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9, 180쪽.

37) 박명진의 학적부에는 보증인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숙부 최천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박명진은 1929년 1월 20일 양산군 상북면의 큰 부자金正勳과 혼인했다. 박명진의 <학적부>, <제적부>. 참고로 김정훈은 김교상의 아들이다.

38) 『민주중보』 1946년 3월 1일. 좌천 568번지 최천택의 집에서 기숙하고 있는 이치수여사 사진(당 75)이 실려 있다.

39)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9, 180쪽.

한편 1909년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본군은 남한지역의 의병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안중근이 이토오(伊藤博文)를 총살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한국 병탄소식을 들은 부산공립상업학교 학생 변상태, 최기택, 성학영 등 6명이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불락산에서 대봉회를 조직했다.<sup>40)</sup> 대봉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 성행한 학생 비밀결사의 경우 보통 교내 독서회 조직, 강연회 등을 통한 사상 전파나, 국내에 잠입한 애국지사나 독립 단체 등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대봉회도 유사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41)</sup> 물론 대봉회가 비밀결사 조직이라 당시에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학교에 박재혁, 최천택, 오재영 등이 입학했다.

한편 박재혁이 태어난 1895년 부산부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4,953명 이었는데, 1910년 6월에는 23,000명, 1919년에는 30,499명으로 늘어났다.<sup>42)</sup> 부산은 일본인의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내의 도심지역은 모두 일본인들이 공, 사유하여 조선인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났다.<sup>43)</sup>

박재혁은 1911년 3월 22일 같은 해 5월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바뀌는 부산진사립육영학교를 졸업했다.<sup>44)</sup>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어 서인지 이듬해인 1912년 4월에 부산공립상업학교(구 부산상고 전신,

40)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연표』(『부산민주운동사』,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41) 『대봉회(大鵬會)』(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 2. 18.)

42)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연표』(『부산민주운동사』,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43)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독립운동사』, 1996, 15쪽, 21쪽.

44) 『박재혁』(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 2. 18.)

현 개성고등학교. 이하 부상(釜商)으로 졸업)에 입학하여, 1915년 3월 22일 제4회로 졸업했다. 모친의 자식교육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부상(釜商)은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1)에 의해 제1학기를 4월 1일 시작하여 3학기제, 3년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제4회 졸업생은 모두 27명으로 졸업 기념사진 속에는 박재혁, 최천택,<sup>45)</sup> 오재영<sup>46)</sup>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47)</sup>

부상(釜商) 입학을 전후해서 박재혁은 최천택, 오재영 등과<sup>48)</sup> 더욱 더 각별하게 사귀었다.<sup>49)</sup> 이들은 좌천동과 범일동 사이에 있는 증대산, 증대성이라고 불린 증산(甞山)에 올라 결의형제를 맺었다. 또한 부모상을 당할 때는 같이 상주 노릇을 하고, 모든 일에는 뜻을 같이 하자고 굳게 맹세했다.<sup>50)</sup>

박재혁은 부상(釜商)에 들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더욱 성장하고 구체화 됐다.<sup>51)</sup> 또한 장남으로서

45) 최천택(崔天澤, 1896.6.1.~1962.11.17)은 1896년 6월 1일 좌천동 496에서 최차구(崔此球)와 김행숙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최차구가 해운대, 가야 등지에 많은 논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복하게 자랐다. 최천택 여동생 최금술. 부산일보사, 앞의 책, 177쪽.

46) 오재영(吳載泳, 1897.5.24~1948.8.30) 이외에도 慧泳, 滄泳 등의 이명이 있었으며, 말년에는 오택으로 불렸다. 호는 北星 晚春이다. 주례 사람인 오직선(吳直善)과 김순임(金順任)의 독자였으며, 집안이 한약방을 경영하며 살았다. 1912년 사립명진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강권에 부상(釜商)에 입학했다. 1913년 부산진으로 이사하고, 같은 해 음력 4월 27일 김정수(金貞守)와 혼인했다(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77쪽~78쪽, 87쪽). 김정수는 김삼근의 고종 형수였다(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5쪽).

47) 박재혁 <학적부>, 졸업증명서(개성고등학교장, 2018.8.31.). 최해군, 『부산의 맥』,地平, 1990, 50쪽~51쪽. 『민주중보』 1946. 3.1. 부산상업고등학교, 『釜商百年史』(1995년) 중 「동창회지」, 1928, 568쪽 참조.

48) 최천택과 오택에 대해서는 김 승, 「蘇庭 崔天澤의 항일민족지사로서의 평가」 『한일연구』,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92. 참조.

49) 김승, 앞의 논문.

50)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6쪽.

51) 김도형, 「박재혁-부산경찰서 파괴」,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2년 2월.

의 가족의 부양이라는 부담감도 덩달아 상승했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도 『동국역사(東國歷史)』 배포와 비밀결사인 구세단(救世團)에 참여했다.

## 2. 부산공립상업학교 시절의 활동

### 1) 동국역사 배포

박재혁과 최천택이 부산(釜商)에 입학한 것은 1912년 4월이었다. 2학년 때인 1913년 일제가 발매는 물론 읽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던 『동국역사』를 학우들과 비밀리에 등사해 나누어 주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됐다.<sup>52)</sup>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후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후 통감부에서는 조선의 주권사상을 계도하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문서들은 치안을 방해한다는 미명하에 발행과 판매를 금지시켰다. 나아가 압수, 소각하기까지 했다. 1906년 8월 일제의 압력으로 ‘보통학교령’이 반포되자, 소학교의 폐지와 역사교육과 지리과의 통합으로 한국사교과서의 입지가 사라졌다. 일제는 1908년 『교과용도서검정규정』에 이어, 1909년 출판법반포로 ‘구 학부’ 편찬 교과서를 발매 금지시켰으며, 동국역사도 그 대상이 됐다.<sup>53)</sup>

일제는 우리 역사를 수업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데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겠다고 자각한 박재혁과 최천택은 김병태(金鉉泰), 박흥규(朴興圭) 등과 모의하여 『동국역사』를 여러 차례 등사해서 학우들에게 몰래

52)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8쪽~179쪽.

53) 『동국역사』는 사학자 현채가 편저해 학부에서 편찬했고, 정식명칭은 『보통교과동국역사(普通教科東國歷史)』이다. 한문체로 간행된 중등용 교과서 『동국역대사략(東國歷代史略)』(1899)을 소학교용으로 쉽게 고쳐 국한문혼용체로 서술했다.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를 대상으로 주로 편년체로 서술된 것이다(『동국역사(東國歷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동국역사』란 역사책은 부산진공립보통학교 은사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차용했다 한다. 이러한 활동은 결국 3회 배부 때 발각됐다. 일제 경찰은 주모자인 최천택을 검거하고, 가택수색해서 등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천택은 검거되어 고문과 추궁을 당하다가, 학교 측과 부모의 교섭과 노력으로 10여일 만에 석방됐다. 이 사건 이후 박재혁과 친구들은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기타무라(北村)라는 형사 등으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다.<sup>54)</sup> 이들은 주로 좌천동 출신들이었다.

한편 최천택은 ‘1910년 8월 소위 일한합방이라는 홍보를 듣고 자진해서 광복단(光復團)’에 입단하고, 암암리에 동지 규합에 힘을 기울여 박재혁, 김인태, 김병태, 김영주, 장지형(張志亨, 장건상의 조카), 오재영 등 친구들과 매일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전도를 모의하면서 부산제2 상업학교에 통학했다 한다.<sup>55)</sup>

여기서 비밀결사로 추정되는 ‘광복단’이란 조직에 가입한 것이 1910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광복단’이 어떤 단체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구성원이 구세단원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최천택이 가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재혁을 비롯한 학우들 역시 광복단과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아니면 최천택은 1915년 결성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와 일정 정도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이 와 같은 사실을 마치 1910년 병탄 직전의 상황이었다 것처럼 회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56)</sup>

54)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9쪽. 新井田良子, 『草梁의 丘』, 新幹社, 1999, 138쪽~139쪽. 하시모토 서장은 작중 화자 부친의 절친이다.

55) 박원표, 앞의 책, 1965, 142쪽~143쪽. 참고로 부상(釜商)이 제2상업학교로 개명된 것은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23년이였다.

56) 김승은 앞의 논문에서 3가지 정도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있다. 윤세복 블라디보스톡 광복회, 1913년 풍기 광복단, 1915년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등이 그것이다. 최천택의 장남 최철의 증언에 의하면 밀양의 황상규와 울산의 박상진이 인척으로 교류해 온 사

## 2) 비밀결사 구세단(救世團)

1914년 봄, 3학년이 된 박재혁은 오재영, 최천택, 박흥규, 김병태, 김인태(金仁泰, 이명 金鐵城 김일), 왕치덕(王致德, 釜商 3회 졸업), 김영주, 장지형, 조영상(趙榮相) 등 도합 16명과 함께 구세단을 조직했다.<sup>57)</sup>

구세단의 목적은 경남 각지의 유능한 청년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려는 것이었다.<sup>58)</sup> 구세단원은 제목미상의 매월 1회 발간되는 등사판 잡지에 한사람이 한 쪽지씩 기고하기로 약속했다. 박흥규는 출판을 담당하고, 오재영과 김인태는 재정을 담당했다.<sup>59)</sup> 이들은 경남 일원의 뜻있는 청년들과 의사를 소통, 동지를 규합하고 자체수양회, 연수회를 갖는 등 나름대로 활동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었다.<sup>60)</sup> 이와 같이 구세단의 조직적 전개와 활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다만 구세단에서 월 1회 발간했다는 잡지를 발견할 수 없어, 보다 구체적인 활동과 지향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구세단원은 활동을 시작하지 반년 여 만에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체포됐다. 즉 오재영, 박재혁, 박흥규, 김인태 4명이 검거되어 1주일 동안 심한 고문을 당했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구세단을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sup>61)</sup>

한편 이보다 앞서 밀양에서는 비밀결사 일합사(一合社)가 조직됐다. 일합사는 ‘조국광복의 일편단심을 모아서’ 국권회복에 청춘을 바치겠다는 결의 하에, 1913년에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황상규(黃尙奎)를 비

이라 했다. 최철 증언, 2018년 9월 11일 서면 다연.

57)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9쪽.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88쪽에는 1915년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1915년 3월 22일 부상(釜商)을 졸업했다(박재혁 졸업증명서). 박원표, 『일제에 항거한 야인 최천택』, 앞의 책, 1965, 142쪽~143쪽에는 최천택의 활동 가운데 구세단 활동이 통제로 빠져 있다.

58)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9쪽.

59)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88쪽~89쪽.

60) 김승, 앞의 논문.

61)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88쪽~89쪽.

롯하여 김대지, 구영필,<sup>62)</sup> 윤치형, 이각(이수택), 장인환, 안확, 명도석, 남정섭 등이 같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1913년 말에서 1914년 초쯤에 황상규를 필두로 김대지와 이각이 비밀결사 광복단에 가입했다. 광복단은 1913년경 경상북도 풍기에서 의병운동 경력자인 채기중, 한훈 등 10여 인의 발기로 결성되었는데,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남지역의 청년지식인들이 영입된 것 같다. 그 후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의 주도로 대한광복회가 결성될 때 광복단원들도 대부분 참여했다.

이처럼 일합사와 풍기 광복단에는 황상규, 김대지, 이각 등의 중복 가입자가 있었고, 결성 시점도 비슷했다. 그렇게 보면 두 비밀결사는 은밀히 기맥이 통하는 정도를 넘어서, 직접 연결되어 연합활동을 폈던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일합사는 광복단 조직을 경남지역으로 확장시키려는 목적에서 결성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sup>63)</sup>

이 시기 최천택은 울산, 경주, 김해, 밀양 등지로 다니며 청년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다. 그 과정에서 밀양에서 김원봉을 만나게 되는데, 1916년 10월 중국 천진의 독일계 학교인 덕화학당(德華學堂)에 유학 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sup>64)</sup>

한편 김원봉이 1916년 10월 출국하기 전 국내의 여러 곳을 주유할 때, 부산서 만나 감명을 받았다는 김철성(본명 김인태)은 구세단 단원이었다.<sup>65)</sup> 그래서인지 김인태도 세계일주여행을 계획하고 김원봉을 만나보

62) 구영필에 대해서는 신규수, 『구영필의 독립운동과 국내자료분석』, 『역사학연구』 51, 2013 참조.

63) 보다 자세한 것은 김영범, 『독립운동가 백민 황상규의 생애와 초상』, 『지역과 역사』 40, 2017. <황상규(黃尙奎) - 의열단체 독립운동가들의 만형> (독립운동가, 김영범, 2015.1.6) 참조.

64) 박원표, 앞의 책, 1965, 142쪽~143쪽. 여비를 보냈다는 주장도 있음.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백양당, 1947, 12쪽(깊은샘, 2000 복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이 연합국에 선전포고했기 때문에 독일인은 추방되고 독일계학교는 폐쇄 됨. 그래서 남경의 금능대학에 입학했다. 新井田良子, 앞의 책, 140쪽.

려고 왕치덕, 오재영과 함께 밀양을 방문했다. 그런데 당시 김원봉은 이미 밀양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3명이 그곳에서 기념촬영만 한 적이 있었다.<sup>66)</sup>

이런 전후 사정을 볼 때 밀양의 비밀결사였던 일합사와 부산의 비밀결사인 구세단은 김인태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구성원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다.<sup>67)</sup>

또한 박재혁과 친구들은 비밀결사 구세단을 조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무장 독립운동단체와 연계를 모색했다. 이는 최천택이 만주 혼춘에서 구 한국군을 거느리고 무장투쟁을 하고 있다는 황병길과 제휴하기 위해, 1917년 김병태, 장지형을 북간도로 밀파했다는 데서 확인 된다.<sup>68)</sup> 그런데 이들 양 조직은 상인, 자본가, 지주들이 중심이 된 대한광복회나 조선국권회복단처럼 독립운동 자금을 직접 제공하지는 못했다.<sup>69)</sup>

### Ⅲ. 사회진출과 부산경찰서 투탄

#### 1. 사회진출

박재혁, 오재영, 최천택은 1915년 3월 22일 부상(釜商)을 졸업했다. 이 무렵 그는 돈도 많이 벌여 노모와 어린동생도 부양하고, 독립운동에

65)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89쪽.

66) 김삼근편저, 위의 책, 1982, 162쪽 기념사진.

67) 김승, 앞의 논문. 김인태는 이후 1935년 의열단체열 군관학교 연락원으로 활동했다. (박태원, 앞의 책, 깊은샘, 2000 18쪽. 金正明, 『朝鮮獨立運動』Ⅱ, 原書房, 557쪽)

68)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80쪽. 황병길에 대해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제1집』, 1983, 1126쪽 참조.

69)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232쪽~239쪽.

도 크게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박재혁은 오재영과 함께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운 후 박재혁은 어학공부를, 오재영은 금융공부에 전력을 기울였다. 오재영이 미국으로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친 인감을 도용하여 대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수포로 돌아갔다.<sup>70)</sup>

최천택은 부상(釜商)을 졸업한 후 합천금융조합에 취직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었다. 이후 대교동에서 쌀장사를 하면서 상해로 갈 궁리를 했다 한다.<sup>71)</sup> 금융조합에 근무한 것은 1915년 4월 이후부터 1916년 봄까지로 추정된다.

한편 1915년에는 부산진에서 초량까지, 연말에는 동래까지 전차가 개통됐다. 개통 후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다. 예를 들면 1916년 9월 13일 부산진에서 전차사고로 조선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분노한 항민들이 전차를 전복하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일제 경찰은 주동인물 4명을 소요죄와 ‘왕래 방해죄’로 검거했다.<sup>72)</sup>

박재혁은 부상(釜商)을 졸업한지 1년 만에 1916년 4월 부산 조선와사 전기회사(朝鮮瓦斯電氣會社) 전차 차장으로 취직했다.<sup>73)</sup> 단기간 내에 해고 됐다.<sup>74)</sup> 일제 경찰은 박재혁이 학창시절 동국역사배포 건이나 구세단 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여 해고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혁은 전차 차장을 해고된 후<sup>75)</sup> 친척인 박국선(朴國善)이 경영하

70)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89쪽.

71)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9쪽.

72) 부산지방보훈청, 앞의 책, 1996, 43쪽.

73) 『매일신보』 1920. 10. 5. 참고로 1919년 4월 20일 부산조선와사전기회사 차장, 운전수, 수련공 61명이 월수입 3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 회사 측이 요구조건의 일부를 수용하여 업무에 복귀함. 조선총독부내무국사회과, 『會社及工場に於ける勞働者の調査』(1923년판), 1924, 64쪽.

74)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1 : 의열투쟁사 자료집, 111쪽~114쪽.

는 경북 왜관역전의 곡물무역상에서 일했다. 왜관을 왕래하며 곡물상에서 일하다가 그것도 얼마 안돼서 그만두었다. 1917년 6월 곡물상에서 자금 700원을 조달해 상용(商用)으로 상해로 갔다

이 때 박재혁, 김인태, 오재영은 함께 상해로 가려 했으나, 자금사정으로 박재혁과 김인태가 먼저 출발했다. 이때 김인태는 이미 알고 있던 김원봉과 조우해서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박재혁은 싱가포르 등을 왕래하며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당초의 계획인 도미(渡美)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6)</sup>

박재혁은 오재영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도미(渡美) 준비가 다되어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권과 선표,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 낙심하여 그 다음날 황포강에 투신자살을 시도했는데, 석탄운반선 인부에게 구조됐다. 부득이 남양 등지로 갔다가 필리핀에서 도미할 수밖에 없으니, 인삼을 사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이편지에 혈서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당시 오재영은 하와이 북미등지에서 이민 출가한 인물과 공동출자해서 조선명물회사를 만들었다. 이 회사는 인삼, 고추, 마늘, 명태, 해초 등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잡화를 수입하는 것이었다.<sup>77)</sup> 이에 오재영은 박재혁의 노모를 안심시키고 인삼 10여근을 보냈다 한다.

이후 박재혁은 홍콩을 경유해서 싱가포르로 가서 미스이(三井)물산지점에 취직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인태는 전차차장 감독을 하면서 김원봉과 동지를 규합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재영은 무역 실적을 늘려 정식여권을 얻어 도미(渡美)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75)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80쪽에는 전기회사를 그만둔 후 부산부청을 거쳤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76)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 『매일신보』 1920. 10. 5. 박명진은 왜관에서 연락이 와서 집을 팔아 오빠가 빌어간 돈을 갚았다 한다. 부산일보사, 위의 책, 1983, 180쪽.

77)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90쪽.

미국인 전도사 부인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sup>78)</sup>

박재혁은 간혹 인삼을 청구하기도하고, 오재영에게 생고무편을 보내면서 고무신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오재영은 화학지식과 창조력이 없어 만들지는 못했다 한다. 이후 오재영은 부산경찰서 투탄 연계자로 검거됐을 때, 직업이 인삼상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아 주로 인삼을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삼무역상들이 상해를 거쳐 싱가포르를 왕래했던 사실에 비추어 박재혁도 주로 인삼무역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인삼 무역상점은 단순한 영업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따라서 당시 박재혁은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79)</sup>

박재혁이 상해와 싱가포르 등으로 왕래하면서 사업과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고 있을 즈음, 1919년 2월 초순 상해에 있던 김인태가 밤늦게 오재영의 집을 방문했다. 김인태는 세계정세와 조선독립까지 일관되게 설명을 했다. 오재영은 상경해서 서울을 거쳐 상해로 가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혹시 그리던 미국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오재영이 자금을 준비하는 동안 김인태는 먼저 상경했다.<sup>80)</sup>

오재영은 20일 경 상경했으나, 당시 김인태는 사태가 위급하여 상해로 먼저 가니 뒤따라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출발한 후였다. 오재영은 각 전문학교 재경 친구들을 방문해서 거사의 개요를 듣고 연락부분을 맡아 주었다.<sup>81)</sup>

한편 1919년 2월 중순 최천택은 김인태로부터 2월 22일 모지(門司)

78)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03쪽.

79) 김도형, <박재혁-부산경찰서 파괴>,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12년 2월.

80)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04쪽.

81) 김삼근편저, 위의 책, 1982, 105쪽. 1919년 9월 하순 연동체와 관련해서 오택은 경남, 송전도는 경북책임을 맡았다. 송전도와 오택은 경남대표위원으로 김병규를 추천했는데 13도 간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경북은 광종학이 선임됐다. 김삼근편저, 위의 책, 1982, 113쪽.

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전보를 받았다.<sup>82)</sup> 최천택은 김인태와 상봉했다. 이 때 3월 1일 전국적으로 전개될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들었다. 이후 최천택은 후배인 백용수(白龍水)에게 등사판으로 『독립신문』을 찍어 널리 알리도록 했다.<sup>83)</sup>

그런데 상해에서 온 김인태가 1919년 2월 오재영과 최천택을 만나면서 오간 대화 가운데, 박재혁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의문이다. 네 사람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얘기를 나누었는데 신변잡기라 언급하지 않았을까? 보안을 요해서 함구한 것일까? 은밀한 임무를 맡고 있어서 김인태가 애초에 숨겼을까?

이와 같이 박재혁은 1917년 6월 부산을 떠나 3년 이상 상해와 싱가포르 등지를 왕래하면서 인삼 등의 무역업에 종사했다. 동시에 동지들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3.1 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신심을 다져 투신했다.<sup>84)</sup>

## 2. 의열단 입단과 투탄 준비

의열단은 창립하자마자 일본의 요인과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1920년 7월 10일 경 거사일로 잡고, 김원봉 외 2인을 제외한 의열단원이 국내로 잠입했다.<sup>85)</sup> 이들은 같은 해 3월과 4월에 폭탄을 밀양, 창원, 부산으로 밀송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부산경찰서와 경기도 경찰부에 적발됐다. 1920년 6월 16일 서울 인사동에서 회의 중에 경기도 경찰부 경부 김태석과 부하들의 급습을 받아 곽재기, 이성우, 황상규,

82)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81쪽.

83) 박원표, 앞의 책, 1965, 143쪽. 1919년 8월에 창간된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으로 보인다.

84) 박원표, 위의 책, 1965, 90쪽.

85) 김영범, 『의열투쟁 I - 1920년대』(한국의 독립운동사 2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2009, 149쪽.



윤세주 신철휴 등 6명은 체포됐다.<sup>86)</sup>

이후 부산과 마산으로 내려간 단원들도 잇따라 검거됐고, 1920년 9월 20일 진영에 숨겨둔 폭탄 13개, 권총과 탄환 등도 모두 압수됐다.<sup>87)</sup> 이 사건으로 총 20명이 검거되어 1921년 3월 15명이 기소됐다. 1921년 6월 21일 경성지법에서 광재기(이명 광경), 이성우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sup>88)</sup>

이상에서와 같이 1920년 초부터 의열단에서는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원들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박재혁도 의열단 입단을 권유 받았다.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이 무산되자 김원봉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세웠다.

박재혁은 싱가포르에서 1920년 3월 상해로 돌아와 김원봉으로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때는 가사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sup>89)</sup> 1920년 4월 다시 상해로 가서 7월초까지 머물면서<sup>90)</sup> 김원봉과 만나 의열단에 가입했다.<sup>91)</sup> 박재혁도 의열단에서 신입에게 실시되던 소정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희제 등이 관여했던 대동청년당에서 활동하던 김기득(金奇得)도 1920년 3월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입단하고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 추진에 참여했다.<sup>92)</sup>

86)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3쪽. 김태석(金泰錫, 1883~?)은 친일경찰로 별명이 ‘고 문왕’으로, 1918년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에 근무했는데, 강우규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고문함.

87) 김영범, 앞의 책, 2009, 149쪽~150쪽.

88) 김영범, 앞의 책, 2009, 150쪽, 광재기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1.6.22. 김기득, 이낙준, 황상규, 윤소룡, 신철휴, 는 각 징역 7년, 윤치형 5년, 김병환 3년, 배중세(배동선)는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주현 김재수는 징역 1년 김행유에 2년을 받았다.

89) 『매일신보』 1920. 11. 5. 1심 재판과정에서 나온 진술임.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111쪽~114쪽.

90) 『매일신보』 1920. 10. 5.

91) 『매일신보』 1920년 10월 5일자에 사건경위가 보도 될 때까지만 해도 해도 ‘김원봉’이라 특정하지 않고 ‘상해에 머물고 있던 조선사람으로’부터 독립운동 권유라 보도.

92) 김영범, 앞의 책, 2009, 55쪽.

1920년 7월 19일 박재혁은 박창수(朴昌守)와 1인과 함께 부산진구락부로 가서, 최천택에게 이들을 상해임시정부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4명은 동래 온천장 소재 황정(荒井)여관에서 술을 마셨다. 이 술자리에서 상해임시정부의 조직 상황과 폭탄 투하의 단장은 김원봉이며, 그들은 그의 부하인 것처럼 얘기했다 한다.<sup>93)</sup>

김원봉은 박재혁을 상해로 호출했다. ‘언제 어떤 곳에 있어도 소집에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의열단의 엄격한 맹약이 있었다.<sup>94)</sup> 박재혁은 최천택, 오재영 등과 함께 가사 관계를 정리한 뒤, 김원봉이 김병태(金鉉泰) 명의로 김영주(金永柱) 앞으로 위장 송금한 여비 1백원을 받아서, 1920년 8월 6일 상해로 건너갔다.<sup>95)</sup>

이때 오재영은 각 군에 연통제 책임자를 배치하고, 조사보고 문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1920년 8월 초 13도 간부회의 겸 미국의원단 입경을 구경하기 위해 상경했다. 미국의원단은 8월 24일 입경했다.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이상재의 사회와 윤치호의 환영사에 이어 미국대표자가 답사를 한 후 한 시간 만에 행사를 마쳤다.<sup>96)</sup>

박재혁은 1920년 8월 31일<sup>97)</sup> 상해에서 김원봉과 면담하고 ‘부산경찰서장을 죽여 독립운동의 기세를 높이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응낙했다.<sup>98)</sup> 또한 김원봉은 박재혁에게 부산경찰서장 살해를 명령한 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지 확실하게

93) 「최천택 취조결과」,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94)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2쪽~143쪽.

95)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96)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14쪽~115쪽. 미국의원단 입경일자 등 자세한 것은 김영범, 앞의 책, 2009, 86쪽과 김영범, 『1920년 서울, ‘암살단’의 결성과 의열투쟁 기획: 미국 의원단 내한 계기 항일의거의 신고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2014 참조.

97) 『매일신보』 1920. 11. 5.

98)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김원봉은 범행을 망설이던 박재혁에게 만일의 경우 유족을 돌봐 줄 터이니 걱정 말라고 하며 범행을 강요했다고 한다.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0쪽.

밝히고 나서 죽이라고 지시했다.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계획 당시 검거된 의열단원 대다수가 부산경찰에 의해 체포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원봉은 보복으로 부산경찰서장 암살을 생각했다는 주장도 있다.<sup>99)</sup>

박재혁의 거사목표가 부산경찰서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의열단이 3.1독립만세운동 이후 기존의 독립운동노선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전환을 선언하면서 조직됐는데,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계획이 1920년 6월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관련자 전원이 체포됐다. 이에 의열단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산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현관이었으며, 대륙으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 그런데다 전형적인 식민도시로 개발된 부산은 제2의 오사카로 불렸다. 또한 의열투쟁의 경우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와 타격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박재혁이 가장 잘 아는 부산경찰서가 대상으로 선정됐다.<sup>100)</sup>

투탄을 수락한 박재혁은 폭탄 1개와 돈 300원을 받아 폭탄과 돈 50원은 수건에 싸서 가방에 넣은 뒤, 9월 6일 아침 부산행 연락선으로 귀국 했다. 폭탄은 러시아(露國) 1902년 식으로,<sup>101)</sup> 사이즈는 직경 2촌(寸), 높이 4촌의 원통형 주철(鑄鐵)로 된 폭탄이었다.<sup>102)</sup> 당시 사용된

99) 新井田良子, 위의 책, 1999, 142쪽~143쪽.

100) 전성현, 앞의 논문, 2011, 145쪽~146쪽.

101) 『매일신보』 1920. 11. 5. 新井田良子, 위의 책, 1999, 139쪽. 박영랑편저, 『박재혁 의사 약전』, 『圖譜獨立血史』 제2권, 문화정보사, 1950, 53쪽에는 독일제로 나와 있다. 참고로 최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 책의 ‘약전’은 당시 최천택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102) 대구복심 판결 1921년 2월 14일, 『피고인 朴載赫 大正10년 刑上 제44호』, 1921년 3월 31일 고등법원(高等法院), 『大正10년3월 형사재판서원본』. 『매일신보』 1920. 10.5.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고등경찰관계연표』, 1930, 40쪽. 이 무렵 박재혁의 행보에 대해서 송상도의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71,

폭탄의 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본 논문이 처음이다.

투탄을 결심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박재혁의 기지가 돋보인다.

박재혁은 본래 나가사키에서 철도로 시모노세키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연락선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이즈하라(嚴原港)를 거쳐 부산으로 들어가는 배편이 있었다. 당시 관부연락선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심했다. 반면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배는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의 동지들에게 그러한 취지의 엽서를 보내고 부산으로 향했다.<sup>103)</sup> 당시 보낸 엽서에는 상업 현황, 장삿길, 수익과 같은 내용을 담아 상업 활동을 보고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엽서의 말미에 ‘연락선 타지 말고 대마도로서 간다’(熱落仙他地未古 大馬渡路徐看多)라고 써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을 타지 않고 대마도를 거쳐 귀국한다는 것을 알렸다.<sup>104)</sup>

그가 대마도를 거쳐 무사히 부산으로 돌아온 것은 9월 6일 이었다.<sup>105)</sup>

부산에 도착한 박재혁은 오재영집을 방문했다. 행장이라고는 증형가방 한 개 뿐이었다. 일단 수년간 못 본 노모에게 인사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즉시 일어나면서 가방에서 손수건에 찢<sup>106)</sup> 소포(小包)하나를 꺼내어 천장 속에 숨겨두라고 신신 당부했다. 오재영은 수상해서 무어나고 물으니 저녁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박재혁 집에서 밤이 깊도록 귀국 목적 등에 대해 얘기했다.

295쪽에서도 박재혁은 김원봉의 제의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했음을 알 수 있다.

103) 김승, 앞의 논문.

104) 『박재혁』(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검색일: 2019.2.18.) 대마도를 통해 귀국했다는 것은 박영량편저, 앞의 책, 1950, 53쪽에서도 확인된다.

105)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2쪽.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39쪽. 참고로 김삼근편저, 앞의 책, 58쪽과 117쪽에는 9월 7일, 밀양문화원, 『항일독립운동의 선구자 약산 김원봉 장군』, 2005, 67쪽에서는 9월 13일 박재혁이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6) 『부산일보』 <호외> 1920. 9. 14.

박재혁은 총독부를 폭파하여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폭탄을 가지고 상경할 것이라 했다.<sup>107)</sup>

오재영은 박재혁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대기하면서 동래나 해운대 온천에서 쉬면서 몸을 만들라고 했다. 다음날 정양비와 상경비를 충분히 준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영은 다년간 준비해온 도미계획도 접었다. 오재영은 상해의 김인태는 구주(歐洲)의 강화회의에 가버렸고, 박재혁이 옥사한다면 나혼자 잘 살겠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sup>108)</sup>

이처럼 박재혁은 오재영이 절친한 친구이자 동지라 귀국 목적은 공유했지만, 구체적인 공격대상과 세부적인 김원봉의 지시는 보안상 숨겼다. 왜냐하면 수개월에 걸쳐 준비된 의열단의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계획이 지난 6월, 일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재혁이 당일 사용한 폭탄은 수영에 사는 최천택의 당숙모였던 변봉금(卞鳳馨)집에 맡겨두었다는 주장이 있다.<sup>109)</sup> 박재혁이 부산으로 돌아온 후 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일제 경찰이 투탄 직전에 변봉금 집을 압수 수색했는데, 간장독에 숨겨둔 폭탄을 찾아내지 못했다 한다.<sup>110)</sup>

변봉금은 만주군 사령관 우에하라(上原元太郎) 대장의 통역관으로 근무하다, 일본의 한국 병탄 직후 개심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는 최천택의 당숙인 최상훈(崔尙勳)의 부인이다. 그는 서울 연지동에서 하숙을 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 하다, 1920년 초에 수영으로 이사

107)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17쪽~118쪽.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4쪽.  
 108)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18쪽~119쪽.  
 109) 사단법인3.1동지회 편, 『부산경남 3·1운동사』, 1979, 193쪽.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211쪽. 변봉금(1880~1958)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207쪽~212쪽 참조.  
 110)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211쪽 최철 증언.

왔다. 당시에는 수영할머니로 통하면서 일제강점기 내내 항일지사들의 대모역할을 했다 한다.<sup>111)</sup>

이상과 같이 상황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 어렵다. 다만 박재혁이 변봉금을 인지하고 그 집에 폭탄을 맡기려 했다면, 부산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최천택을 만나 의논했을 것이다. 또한 최천택의 회고적 서술에서 폭탄보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게다가 최천택과 당숙인데다가 최상훈의 부인인 변봉금 집에 폭탄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오히려 집안도 부유한데다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오재영의 집에 맡겼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박재혁이 입국한 이후 일본 형사 사카이(坂井)가 오재영을 찾아와 박재혁의 입국 이유에 대해서 탐문했다.<sup>112)</sup>

박재혁은 9월 13일까지 최천택, 김영주와 함께 동래온천, 해운대, 범어사 원효암 등지에서 쉬면서 투탄을 모의했다.<sup>113)</sup>

그런데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이틀 전 1920년 9월 12일에 밀양읍내 주민들의 ‘경찰서 습격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그 해 8월 기승을 부렸던 콜레라 방역작업의 노고를 위로하는 합동연회 자리에서, 밀양경찰서의 노구비(野久尾) 순사부장이 한인 순사 3인을 심하게 구타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sup>114)</sup>

1920년 9월 14일 4.5일간 소식이 끊겨있던 박재혁이 오재영의 집을

111)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210쪽 최철 증언. 최상훈(崔尙勳)(1868~?)은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208쪽에는 崔尙雲, 부산일본사, 앞의 책, 1983, 184쪽에는 崔尙雲으로 되어있다.

112)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19쪽~121쪽.

113)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114) 김영범, 최수봉(1894.3.3~1921.7.8)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6년 2월. 보다 자세한 것은 김영범, 『밀양 항일폭탄의거의 배경과 전말 - 최수봉의 생애 행로와 의열단의 초기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참조.

방문했다. 그는 시세가 급박하니 대상의 대소를 불구하고 결심을 단행 하겠다고 했다. 오재영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친지에게 추호의 피해가 없도록 단독책임을 지겠다고 했다.<sup>115)</sup>

오재영은 암실에 들어가 부인 김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내어준 것을 박재혁에게 넘겼다.<sup>116)</sup> 맡긴 물건을 내어줄 때 보니 종이를 벗기고 흰 색수건에 싸니 흡사 병자의 약병처럼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밖에서 대기 하고 있던 자동차를 타고 정공단으로 갔다. 참배하고 난 뒤 박재혁은 떠 났다. 그 때가 오후 1시 30분이었다. 오재영은 부산진예배당에서 열리는 ‘도일(渡日)노동자봉쇄반대 토론회’장으로 갔다.<sup>117)</sup>

오재영과 헤어진 박재혁은 최천택과 만나 함께 전차로 이동해서 용두 산 공원에 올라가 부산경찰서 주변을 정찰한 다음, 기념촬영을 했다.<sup>118)</sup> 박재혁은 부산경찰서로 가고 최천택은 부근에서 지켜보기로 했다.<sup>119)</sup>

### 3. 부산경찰서 투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는 최천택 등과 숙의했다. 그 과정에서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슈헤이(橋本秀平)가 고서적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역업을 하던 경험을 살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했다.<sup>120)</sup> 중국옷을 입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115)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0쪽~121쪽.

116)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5쪽.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2쪽.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4쪽.

117)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9쪽~121쪽~122쪽. 투탄 전 상황을 설명하는 글에서는 최천택이 등장하지 않는다.

118) 이 사진은 김홍주 글, 『깊은 산 먼 울림』, 배달, 1993, 5쪽에 수록되어 있다. 이 사진은 해방이후 『민주중보』1946년 3월 1일자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알려졌다.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4쪽

119) 사단법인3.1동지회, 앞의 책, 197쪽. 해방 직후 최천택의 증언에 따르면 최천택은 용두산공원에서 기다리고 박재혁은 부산경찰서로 간 것으로 진술했다(『민주중보』(1946년 3월 1일).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

『부산일보』<sup>121)</sup> <호외>나 『매일신보』 등에 조선복(朝鮮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중국 고서 사이에 손수건으로 싼 직경 2촌(寸) 높이가 4촌(寸)으로 주철(鑄鐵)로 만들어진 원통형 폭탄을 숨겼다.<sup>122)</sup>

당시 부산경찰서는 2층의 서구식 목조 건물로 건축된 청사는 외벽(外壁)을 널빤지를 따따따닥 포개어 이어 붙인 비늘판 붙이기로 꾸며 놓았다. 서구식 창문에다가 지붕은 일본식 팔작(八作) 지붕이었다.<sup>123)</sup>

박재혁은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경 금평정(琴平町, 현 동광동) 소재 부산경찰서 사무실에 공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갔다. 하시모토 서장의 오른쪽 가까이까지 접근하자, 서장이 집무를 멈추고 그쪽으로 몸을 돌리려했다. 그 순간 자신이 의열단임을 밝히고 준비해 온 폭탄을 투척했다.<sup>124)</sup>

박재혁은 서장의 책상과 접수계원 책상 중간쯤의 상상(床上)에 투탄했으며, 하시모토서장과는 거리는 3척(尺)이었다. 이 투탄으로 굉음과 함께 흰 연기가 서장실에 가득 찼으며 1층의 유리창이 전파됐다. 또한 책상이 부서지고, 안락의자의 오른쪽 다리를 분쇄하고, 의자 밑을 관통한 파편은 결재함 서류 뚜껑을 부셨다. 다른 파편의 일부는 서장실 천정

120) 김도형, 앞의 글.

121) 일제강점기 『釜山日報』는 1907년 10월 1일 아쿠다카와(茶川浩)가 창간했다. 발행인은 界新太郎으로 일본어로 발행된 친일 신문으로 해방직후 까지 존재했다. 오늘날 『부산일보』와는 다르다.

122) 『부산일보』 <호외> 1920. 9. 14.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판결문, 1921년 3월 31일 경성 고등법원 판결문. 경성 고등법원 판결문은 김한근 소장과 김재순 관장의 도움으로 입수했다.

123) 부산경찰서는 1897년 금평정(琴平町, 현 동광동)으로 이전했는데,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자 1905년 바로 그 자리인 용두산 동남쪽 기슭에 새 청사를 지었다. 1906년 부산이사청 경찰서, 1907년 부산경찰서로 개칭됐다. 1924년 현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으로 이전했다. 『일본영사관 소속 부산경찰서』(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검색일: 2019. 2. 18.).

124) 『부산일보』 <호외> 1920. 9. 14.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2쪽~143쪽.



과 2층 사범사무실 마루 바닥을 관통했다.<sup>125)</sup>

폭발소리와 먼지에 놀란 경찰들이 달려와 하시모토 서장의 신변을 경호했다. 박재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하시모토 경찰서장은 오른쪽 무릎부위가 출혈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일제 경찰은 즉시 비변경찰들을 비상소집하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부산지법 검사국과 니시무라(西村) 병원장 및 부립병원에 연락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오오무라(大村)검사정과 구보타(窪田) 검사와 서기 수명이 2대의 자동차로 현장에 도착했다. 하시모토 경찰서장은 황급히 달려온 니시무라병원장과 스자쿠(朱雀) 두 의사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상황을 보고했다. 박재혁은 우측관절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 이때가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투탄 후 한 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 반 무렵이었다.<sup>126)</sup>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직후 당시 진주에 있던 경남경찰부에서는 경남전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형사들을 부산에 특파했다.<sup>127)</sup>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이 세인(世人)들에게 최초로 알려진 것은 당일 『부산일보』 <호외>를 통해서였다.<sup>128)</sup> 이후 일제 경찰의 보도통제로 20여일이 지난 1920년 10월 5일에야 보도됐다. 투탄 당일 부산에서 사건경위에 대한 것이 전보로 송고되어 왔으나, 당국에서 게재금지조치 때문에 보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sup>129)</sup> 이와 같이 일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파악하고, 엄격한 보도통제를 통해 철저하게 막았다.

125) 1921. 3. 31. 경성 고등법원 판결문. 박원표, 앞의 책, 1965, 144쪽. 그런데 이 책에는 9월 1일 투탄했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인지 박재혁 관련 비문들에는 투탄 날자가 9월 1일, 9월 2일, 9월 13일 등으로 각 각 다르다(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64쪽)

126) 『부산일보』 <호외> 1920. 9. 14.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9쪽.

127)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3쪽.

128) 『부산일보』 1920. 9. 14.

129) 『매일신보』 1920. 10. 5.

그런데 사실 당시 일제의 보도 통제는 별효과가 없었다. <호외>에 소개된 박재혁의 이력에 대한 것 등이 부산전체에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학교나 수예학원에 다니는 일본인 아이들에게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은 화제 꺼리가 됐다.<sup>130)</sup> 10월 5일자 신문 조간에 처음으로 사건에 관한 경찰발표가 실렸다.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은 <호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131)</sup>

박재혁이 투탄당시 제시했다는 ‘전단’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장에서 수거된 손수건에 폭탄 형상의 붉은 녹물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폭탄을 준비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오래전부터 투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2)</sup> 또한 폭탄 파편은 증거물로 채택됐으나 전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단이 폭발과정에서 소실됐던지 아니면 애초에 상상의 산물이었을 수 있다.<sup>133)</sup>

한편 하시모토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폭살 당했다거나, 사건 후 부상 후유 사망했다는 주장이나, 서장 외 순사 2명을 폭살하고 서옥을 파괴,<sup>134)</sup> 현장에서 3명이 즉사했다는 등의 주장들이 있지만 이점은 사실과 다르다.

첫째, 당시 사건을 최초 보도한 『부산일보』 <호외>나, 『매일신보』, 고등경찰보고와 3심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하시모토 서장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부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박재혁에게 적용한 주요죄목이 ‘폭발물취체벌칙위반’과 ‘살인미수죄’이다. 1921년 3월 31일 경성 고등법원에서 3심이 진행될 때에도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만약 부상후유 사망했다면 재판진행과정에서 살인미

130)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38쪽.

131)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39쪽.

132) 『부산일보』 <호외> 1920. 9. 14.

133)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

134) 김삼근이 박찬현 문교부장관에게 부탁해서 고쳐 세운 1963년 3월 1일 묘비(국립묘지 76번).

수죄가 아니라 죄목이 ‘살인죄’로 변경 적용됐을 것이다.

특히 1920년 11월 6일 부산지법 제1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감경하여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사유가 타동적이고 폭탄이 투척됐으나 서장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하시모토의 관력(官歷)확인을 위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부산일보』 등을 검색한 결과 1920년 11월 17일 의원(依願) 면직 사실은 확인되지만 ‘부고’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만에 하나 경성 고등법원 재판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부상후유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하시모토서장은 1864년생으로 1906년 12월 한국으로 와서 원산경찰서장을 역임하고, 1917년 창덕궁경찰서장에 재직하다가 경시(警視)로 진급하고, 1919년 8월 14일부로 부산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1920년 9월 14일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으로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부산 부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920년 11월 15일 특지에 의해 1위 특진하고, 동년 11월 16일 승서고등관 4등 정6위 훈5등, 2급 봉급이 하사됐으며, 동년 11월 17일 의원면직 됐다.<sup>135)</sup>

한편 부산경찰서 안에서 폭발음이 난 뒤에도 박재혁이 나오지 않자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느낀 최천택은 좌천동 집으로 달려갔다. 이후 사후 책을 궁리하던 중 약 40분 뒤 체포됐다.<sup>136)</sup>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재영은 박재혁과 헤어진 후 부산진예배당에서 도일(渡日)노동자봉쇄반대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마칠 때 쯤 부산경찰서 형사 5, 6명이 들이닥쳐 다른 4, 5명과 함께 체포됐다. 일제 경찰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청년상인들 수십 명을 체포해서 부산경찰서 2층 유

135) 『매일신보』 1919. 8. 14. · 8. 23. 1921년 1월 12일에는 조선총독부 도 경시(警視, 加尾桂太郎)가 연봉 2,350원으로 부산경찰서장에 새로 부임했다. 『조선총독부관보』 1921. 1. 18. 하시모토의 배우자 및 일본 원적 등에 대해서는 『재조선내지인신사명감』, 592쪽 참조. 한국근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136) 박원표, 앞의 책, 1965, 144쪽.

치장에 가두었다.<sup>137)</sup> 이날 박재혁의 모친과 누이도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일본인들은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치안이 회복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폭탄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와서 투탄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게다가 다른 곳이 아니라 부산에서 서장이, 서장실에 들어온 조선인에게 폭탄을 맞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경찰서 전체가 놀랐다는 것이다.<sup>138)</sup>

『大阪매일신문』이나 『大阪조일신문』 등은 일선(日鮮) 양 민족의 동화는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요지의 비판론을 대서특필했다.<sup>139)</sup>

즉 “평양과 경성에서 폭탄사고가 난 것은 무지한 자의 횡포라 괴이치 않다. 이번 부산 사건은 천만 의외의 것이며 동경(東京)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동일시 할 수밖에 없다. 부산은 일본인의 거류지이며, 개화정도가 우리와 동일하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부산태생이며, 일본식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배일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아 금 후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다. 일선동화는 단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보도했다.

## IV. 체포 및 재판과정

### 1. 체포 및 조사

일제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50~60명의 청년들을 검거했다.<sup>140)</sup> 당시 부산경찰서에는 일본인 전담 사법경찰관 와다(和田) 사법주임과, 조선

137)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2쪽~123쪽.

138)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37쪽~139쪽.

139)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4쪽. 부산지방보훈청, 앞의 책, 1996, 161쪽~162쪽.

140)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

인 전담 사법주임 한석명(韓錫明), 그 부하 조선인 취조주임 유진후(兪鎭厚)라는 맹한(猛漢)이 있었다.<sup>141)</sup> 이들 조선인 사법경찰관들은 박재혁 투탄 용의자들뿐만 아니라 ‘밀양 진영사건’ 관련자들도 고문, 취조했다.

유치장을 지키던 경찰들은 다음날 새벽이 되자 어제 『부산일보』 호외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그들 대화의 요지는 경찰서장과 범인은 부립병원에 입원가료 중인데 생사를 알 수 없다. 아래층에 경상자가 많으나, 폭음에 졸도 했을 뿐이고 위독한 자는 없다는 것이었다.

일제 경찰은 투탄 관련자로 최천택(경신상회점원), 김영주(잡화상), 오재영(인삼상), 백용수(부산주일상회점원), 김작치, 강필문(부산공태상회점원) 등을 체포하여 고문, 취조했다.<sup>142)</sup>

이들은 박재혁이 부상으로 위독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백 할리 없다고 보았다. 매일 진행된 경찰 신문에서 알고지내거나 친구인 것은 맞지만, 범행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sup>143)</sup> 박재혁도 부상당한데다 온갖 고문을 당했지만, 친구들과 당초 약속한데로 단독 범행임을 완강하게 진술했다.<sup>144)</sup>

일제 경찰은 김영주의 집을 가택 수색했다. 그런데 투탄과 관련된 증거는 찾지 못하고, 다수의 불온문서만을 발견했다.<sup>145)</sup> 오재영은 부산으

141) 한석명은 1890년 생으로 1909년 도 번역관보에서 경찰로 전직하여 부산, 창녕경찰서를 거쳐, 1919년 6월부터 부산경찰서 사법주임으로 근무했다. 1922년에서 1925년 사이에는 경남경찰부 고등과 근무하고, 경시로 진급하여 보안과장을 지냈다.

유진후는 1888년생으로 1916년 12월 21일 부산경찰서 순사, 1920년 부산경찰서 경부보로 임명됐다. 1923년부터 1933년까지 경상남도 부산경찰서 경부로 근무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26년간 고등계 등에 근무하면서 경남일대의 독립운동을 해친 자이다.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4쪽. 『조선공로자명감』, 『조선총독부시정 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부산신문』 1949. 3. 3. 『조선중앙일보』 1949. 5. 4.

142) 『매일신보』 1920. 10. 8.

143)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5쪽·129쪽·134쪽.

144)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9쪽(김삼근의 누이 김금수(당 80)).

145)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로 돌아온 박재혁이 손수건에 싼 조그만 물건을 ‘떡’이라고 말하고 맡겼다. ‘떡’은 당시 은어로 마약을 지칭하는 것이라 오재영은 더 묻지 않았다. 반면 박재혁에게 병원비, 용채 등의 명목으로 1,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sup>146)</sup>

이처럼 동지들은 고문 취조에도 공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박재혁 또한 끝내 단독범을 주장했다. 그 결과 사건연루자로 지목된 최천택, 김영주, 오재영, 백용수, 김작치, 강필문 등은 1920년 10월 16일 기소 유예 처분으로 석방됐다.<sup>147)</sup>

일제 경찰은 사건조사 초기 부산경찰서에 던진 폭탄이 큐슈(九州)에서 절취했다는 혐의를 두고, 일본인 형사를 시모노세키와 후쿠오카로 급파했다. 조사결과 부산경찰서 투척한 폭탄은 정밀한 것으로 당초 판단과는 달리 상해에서 만든 것으로 결론지었다.<sup>148)</sup>

『부산일보』 <호외> 이후 투탄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1920년 10월 2일 일제의 고등경찰보고로 정리됐다.<sup>149)</sup> 이 내용가운데 일부가 10월 5일자 신문에 보도됐다.<sup>150)</sup>

1920년 10월 2일 사건 경위가 발표될 때 까지만 해도 박재혁은 ‘상해에 머물고 있던 조선 사람으로’부터 독립운동 권유받았다고 했다. 10월 20일자 보도에는 김원봉으로 특정하고 있다.<sup>151)</sup> 이렇게 된 데에는 통상

146)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1쪽. 오택의 부친은 당시 한, 유, 와다 등을 요인을 통하여 매수하는데 수 만원이 들었다고 했다(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5쪽).

147)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129쪽. 『매일신보』 1920. 10. 20. 최천택은 ‘전 생애를 통해 대소의 고문이 많았지만, 1차도 징역을 받지 아니했음은, 여하한 고문이라도 참고 견디면 된다는 것이 신념이기 때문이다. 만일 입을 열면 동지는 물론, 나 자신도 10년 내지 3~4년의 징역을不免했기 때문이다’라고 회고했다(박원표, 앞의 책, 1965, 144쪽~145쪽).

148) 『매일신보』 1920. 10. 8. 『매일신보』 1920. 10. 10.

149)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고등경찰요사』 98쪽에는 김원봉 외 7명,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서장 외 2사람을 부상시키고, 박재혁 외 2명이 체포됐다고 나와 있다.

150) 『매일신보』 1920. 10. 5.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박재혁이 투탄을 사주한 자에 대해 묵비 또는 둘러대다가 이 시점에서 구체적 인물을 특정했을 수도 있다.

<표 1>은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관련자들의 관련혐의, 본적, 직업, 학력 및 경력, 이후 주요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투탄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백용수는 부산주일상회 점원이었는데, 부산주일상회의 대표 최한식은 기미육영회의 평의원이었다. 강필문은 부산무역상공태상회 점원이었는데, 울산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공태상회 회주 최태욱(崔泰旭)의 방에 기숙했다. 최태욱은 기미육영회의 간사였다.<sup>152)</sup> 김기득은 투탄 이전에 이미 ‘밀양진영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어 후일 징역 7년에 처해진다.

<표 1>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관련자

투탄관련 혐의	성명 (나이)	본적	직업	학력 및 경력	이후 주요활동
폭탄투하 수괴 (체포)	朴載赫(26) 1895	범일183	무직	육영재 사립육영학교 釜商 국채보상모금 동국역사배포 광복단 구세단 의열단	1921.5.11망
폭탄투하 교사자 (미체포)	金元鳳(24) 金成一 1898	밀양 부내	미상	동화학교 일합사 대한광복단 의열단장	의열단장
공동혐의 연계자 (체포)	崔天澤(25) 소정 1896	좌천 469	慶信 상회 점원 하역	육영재 사립육영학교 국채보상모금 釜商 동국역사배포 광복단 구세단	부산청년회 신간부산지회부 회장 시대일보사장

151) 『매일신보』 1920. 10.5., 20.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39쪽.

152) 1920년 5월 4일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가 기미육영회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보고한 문서, 『己未育英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Ⅱ』 秘受05360號/高警第12653號.

공동협회의 연계자 (체포)	金永柱(25) 1896	좌천 573	잡화 상인	육영재 사립육영학교 釜商 국채보상모금 동국역사배포 구세단	신간부산지회설 립준비위원
공동협회의 연계자 (체포)	吳載泳(24) 오재영오택 1897	좌천 581-2	인삼 상인	사립명진학교, 釜商 동국역사배포 구세단	1921. 8. 3. 대구복심제령7 호 위반 징1년 부산청년회 신간부산지회서 무부장
공동협회의 (미체포)	金鉉泰(22) 김빈조국동 1899	경성 재상해	무직	岡山 金光중학 3년 수업 육영재, 사립육영학교, 구세단	박재혁부산행 자금제공, 황포군관학교, 의열단무한지부, 김원봉의비서
공동협회의 (경성 미체포)	金奇得(22) 金台熙1899	서울	미상	확인	의열단
공동협회의 (미체포)	朴昌守(24) 1897	밀양	미상	釜商	
연계자 (체포)	白龍水(24) 1897	좌천동 125	釜山 主一 상회 접원	사립육영학교 (부산진공립보통학교) 釜商6회 국채보상모금	독립신문복사 배포
연계자 (체포)	金作致(24) 1897	좌천동 592	미상	미상	
연계자 (체포)	姜弼文(26) 1897	울산 성안동, 부산 崔泰旭方	釜山 共泰 상회 접원	미상	

※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1 : 의열투쟁사 자료집, 111쪽~114쪽 ; 김승, 앞의 논문 ; 『매일신보』 1920년 10월 6일 <부산폭탄범 연루자 다수를 체포 지금취조 중> ;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11, 127쪽 등을 참고함



## 2. 재판과정과 양형

### 1) 제1심 부산지법

박재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920년 11월 2일 ‘사형’을 구형받고, 11월 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sup>153)</sup> 검사의 공소로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재혁 측에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경성 고등법원에서 1921년 3월 31일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다.<sup>154)</sup>

그간에는 부산지법에서 ‘사형’, 대구복심에서 ‘무기징역’, 경성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당시는 언도)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재판관련 기사와 자료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투탄과정과 현장상황, 피해정도 일제의 사법체계,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한 일제의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 10월 16일 오후 박재혁(朴在赫 26)은 ‘폭발물취체벌칙위반(爆發物取締罰則違反)과 살인미수죄’로 부산지법에서 공판에 부쳐 졌다.<sup>155)</sup> 박재혁의 재판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920년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0까지 진행됐다. 여기서 노다 검사는 박재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재혁에 대한 1심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56)</sup>

153) 『매일신보』 1920. 11. 11.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59쪽. 『독립운동사 제7권』에는 부산지법 사형선고 공소, 1921년 대구복심 무기징역, 경성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나와 있다.

154) 『매일신보』 1920. 11. 8.· 1921. 2. 14. 대구복심과 1921년 경성 고등법원 판결문.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5쪽. 그런데 사단법인3.1동지회 편, 『부산경남3·1운동사』 1979에는 부산지법 사형, 대구복심 무기징역, 경성 고등법원 사형 선고로 나와 있다.

155) 『매일신보』 1920. 10. 20.· 10. 28.· 11. 5.

구분통(九分通)에 있는 법정 문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경관 10여명이 엄중한 경계를 펼쳤다. 오전 8시부터 방청객이 입장하기 시작하여, 9시 무렵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수백 명의 군중들은 법정 밖에서 재판을 지켜보았다.

방청석의 맨 앞줄에는 눈물을 흘리는 모친과 누이동생의 모습은 일동의 시선을 모았다. 박재혁은 오전 9시 2명의 기마헌병이 앞뒤로 경계하면서 죄수마차로 입장했다. 박재혁은 아직 완쾌되지 않아 고통에 몸이 파리하여 얼굴은 창백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겨우 간수가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다.

아오야마 재판장의 신문(訊問)에 이어, 노다 검사의 공소(公訴)사실 낭독 후 사실 심문(審問)에 들어갔다. 고통에 못 견디는 박재혁은 간신히 대답했다.

노다 검사는 ‘총독정치에 대한 조선인의 오해와 사상의 악화에 대해 도도하게 약 40분 동안 논고했다. ‘이번 박재혁이 범행에 미친 것은 이미 죽기로 결단하고 단행한 것이요, 또 법률상으로 논하더라도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건’이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검사의 논고에 대해 불복이 없느냐고 물은 즉, 박재혁은 다만 머리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그러면서 박재혁은 가족 면회 시켜 달라 했다. 이에 재판장은 규정한 수속을 한 후 면회 될 것이라 말했다.

이 때 방청석 전면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박재혁의 모친은 방성통공을 하면서 박재혁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조선인 간수가 가로막았다. 여동생은 눈을 가리고 돌아 섰으며, 이 모습들을 본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다.<sup>157)</sup>

156)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에 아오야마(靑山)재판장, 미타(三田尻)와 마츠모토(松本) 배석판사의 입회하에 노다(野田) 검사정이 출정한 후 개정됐다.

박재혁에 대한 제1심 선고공판은 11월 6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지법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sup>158)</sup>

법원 입구에는 경찰 몇 명이 엄중한 경계를 펴고 있었으며, 오전 8시가 지나서부터 방청객이 모이기 시작하여, 9시 반이 되자 법정은 입추의 여지없이 찼다. 대다수의 방청객이 조선인이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넘쳐, 문짝에도 기대고 또는 나무위에 타고 올라가 귀만 세우고 있는 자도 있었다.

박재혁은 오전 9시 반에 1명의 기마헌병의 경호로 죄수마차를 타고 출발하여 10시 20분에 법원에 도착했다. 아직 낮지도 않은 관절등과 괴로운 몸을 간신히 움직이며, 파리한 몸을 3명의 간수에게 부축 받아 법정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모친과 누이동생은 대성통곡하자 경관의 주의를 받았다.

아오야마 재판장은 건조물침입죄 및 폭발물사용죄, 살인미수죄, 건조물파괴죄의 합죄(合罪)로 일호(一毫)도 가차(假借)할 수 없으나, 범죄 동기가 타동적이고, 비교적 피해가 근소하고, 인명이 미상(微傷)에 그친 점, 아울러 피고가 십분(十分) 회오(悔悟)의 모습이 역연(歷然)한 것도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sup>159)</sup>

이와 같이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부산지법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노다 검사는 양형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즉시 공소(控訴)했다.<sup>160)</sup>

157) 『매일신보』 1920. 11. 5.

158) 『매일신보』 1920. 11. 8.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91쪽. 부산지법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사실은 적시하고 있지만 경성 고등법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159) 『매일신보』 1920. 11. 8. 사단법인3.1동지회, 앞의 책, 80쪽에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당시 『매일신보』에 보도된 내용을 각주를 달지 않고 전제한 것이다.

160) 『매일신보』 1920. 11. 10. 『부산경찰서폭파사건』대구복심, 1921. 2. 14. 『매일신보』 1921. 3. 15.

## 2) 대구복심과 경성 고등법원

박재혁은 검사의 공소로 2심인 대구복심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920년 11월 17일 오전 11시 기차로 대구복심법원검사국으로 호송되어, 대구감옥에 수감됐다.<sup>161)</sup> 박재혁은 고문 취조의 후유증과 폭탄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점점 쇠약해져 갔다. 게다가 부산보다 훨씬 추운 대구감옥에서 겨울을 넘기는 수형생활은 빙실(氷室)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통은 훨씬 더 컸다.<sup>162)</sup>

이와 같이 박재혁이 항소심을 위해 대구로 이감된 후 의열단원 최수봉(이명 崔敬鶴)이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에 투탄했다. 검거된 최수봉에 대한 재판은 폭발물취체벌칙, 건조물손괴, 구내침입죄로 상고심까지 속행으로 진행되어,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결됐다. 일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연이은 투탄의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었다. 즉 1921년 2월 3일 부산지방법원 검사의 사형 구형, 2월 10일 재판장 무기징역 선고, 4월 16일 검사 공소에 의한 대구복심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sup>163)</sup>

이 와중에 박재혁의 항소심이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진행됐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한 2심 재판결과를 요약한 일제 경찰은 ‘부산경찰서 폭파사건’으로 명명했다. 또한 조선독립사상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경찰서를 파괴하고, 서장에게 부상을 입힌 건으로 정리했다.<sup>164)</sup> 특히 ‘조선독립사상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대목은 상고심인 경성 고등법원에서 ‘민심을 동요시킬 목적으로’란 죄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형확정 판결에 크게 영향력을

161) 『매일신보』 1920. 11. 18.

162) 新井田良子, 앞의 책, 1999, 146쪽.

163) 김영범, 『최수봉의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6년 12월. 최경학판결문 대구복심, 경성 고등법원. 1921년 5월 23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사형이 확정된 그는 7월 8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164) 1921년 2월 14일 대구복심.

미쳤다.<sup>165)</sup>

결국 대구복심법원에서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취소되고, 사형을 선고 받은 박재혁은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 기모토(木本房吉)를 대리인으로 상고(上告)했다.<sup>166)</sup>

경성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은 두 차례의 심리가 진행됐다. 1921년 3월 14일 오전 10시 와다나베 재판장을 필두로 담당검사가 임회한 뒤 기모토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다.<sup>167)</sup>

또한 3월 24일에도 오전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대략 1시간 동안 심리가 있었다. 변호사는 약 30분 동안 대구복심법원의 공소한 판결을 파기하여 달라는 요지의 변론을 했고, 이에 대해 검사의 변박이 있었다.<sup>168)</sup>

박재혁은 1921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원판결은 취소되고,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sup>169)</sup> 이때 그의 모친 이치수와 누이동생 박명진이 서로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고 방청객들도 따라 울었다.

이 당시 박재혁은 ‘좀 더 살아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서’ 공소를 제기했다 한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결국 사형이 확정됐지 않았는가? 어차피 없어질 목숨일진데 어찌 적의 손에 욕보기를 기다리겠느냐! 내 목숨을 내손으로 끊겠다! 고 했다 한다.<sup>170)</sup>

한편 이 시기 오재영은 진주지역의 김두현과 함께 ‘상해임시정부와

165) 대구복심법원 재판시 검사는 河村靜水干,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森田秀治郎, 伊藤重三郎, 森竹藏, 山之井麟治 이었다.

166) 『매일신보』 1921. 3. 13.

167) 『매일신보』 1921. 3. 15. 『동아일보』 1921. 4. 1. 『매일신보』와 일부 판사명이 상이함. 渡邊재판장 石川, 小川, 水野, 増永 4 배석판사, 검사 草場이다.

168) 『동아일보』 1921. 3. 14. · 3.15.

169) 『매일신보』 1921. 4. 1.

170) 박영량 편저, 앞의 책, 1950, 53쪽.

기맥을 통하여, 인심동요를 위한 격문을 배포하고 자금도 모집한 혐의'로 피검됐다. 그리하여 1921년 5월 30일 부산지법 진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8월 2일 대구복심에서 기각됐다.<sup>171)</sup>

박재혁이 대구 감옥에 투옥되자 최천택이 자주 면회를 갔다. 박재혁은 폭발 당시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이로 인해 보행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sup>172)</sup>

박재혁은 최천택에게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고 태연자약하게 말했다고 한다. 최천택이 1921년 5월 5일 면회 갔을 때는 무릎의 상처가 아물었다. 박재혁은 “왜놈 손에 사형당하기 싫어 단식 중”이라고 하면서 사식으로 가져간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어 주었다.<sup>173)</sup>

박재혁은 사형집행 전 12일간의 단식으로 자진(自盡)했다.<sup>1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문에는 그전부터 신음하던 폐병으로 옥사했다고 보도됐다.<sup>175)</sup>

박재혁의 사망 일자에 대해서는 4월 23일, 5월 12일, 5월 27일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sup>176)</sup> 그러나 박재혁은 1921년 5월 11일(음력 4월 4일) 오전 11시 20분에 대구 감옥에서 사망했다.<sup>177)</sup>

171) 1919년 3월 29일, 대구지검, 증거불충분 불기소 「형사사건부」. 1심 1921년 5월 30일, 2심 1921년 8월 20일 1심 징역 1년, 2심 공소기각 「형사사건부」. 같은 시기 「집행원부」 1921년 8월 3일 대구복심 판결문.

172) 김도형, 앞의 글.

173)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민주중보』 1946. 3. 1. 부산상업고등학교, 『釜商80年史』, 1975에서는 5월 12일. 박원표, 앞의 책, 1965, 144쪽에는 5월초라고 나와 있다.

174)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

175) 『독립신문』 1921. 4. 9. 『매일신보』 1921. 5. 17.

176)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60쪽. 『민주중보』 1946. 3. 1.

177) 『매일신보』 1921. 5. 17. 『동아일보』 1921. 5. 17. 박재혁 제적부에도 호주변경사유를 적시하면서 사망일자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6쪽에는 11일 새벽 5시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박재혁의 노모로부터 비보를 들은 최천택은 같이 대구형무소로 가서 시신을 인수해 5월 14일 하오 기차 편으로 운구해 왔다.<sup>178)</sup> 박재혁의 시신은 대구역을 떠나 고향인 부산으로 고관역(古館驛)에 도착했다.<sup>179)</sup> 정거장에는 그 친척과 친구가 다수 나왔다.<sup>180)</sup>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고 장례에는 가족으로 남자 2명, 여자 3명만 참가시키고 입관 때에도 인부 2명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타인의 참가를 차단했다.<sup>181)</sup>

역전 매립지 한 편에 자그마한 광목천막을 치고 밤을 새웠으나, 일본 관헌들의 눈이 무서워서인지 조객은 별로 없고, 노모만 울고 있었다. 그 다음날 공동묘지로 출상할 때에는, 호상군도 없는 상여 뒤를 노모만이 지팡이를 짚고 곡하며 따라갔다. 이 모습을 본 동리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sup>182)</sup>

당시의 신문에는 ‘과부(寡婦)의 독자(獨子), 박재혁의 노모는 정신을 상실한 듯’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부산진에 있는 박재혁의 본가를 방문하자 이치수는 “행여나 자식이 방면되기만 바라고 있다가 천만 뜻밖에 이 지경이 되고 본즉 참으로 하늘이 무너진 듯 합니다” 하며 우는 정경은 차마 볼 수가 없더라고 보도했다.<sup>183)</sup>

1946년 2월 28일 김원봉이 부산에 와서 제를 올렸으며, 1948년 10월 유지들의 손으로 좌천동의 정공단 한편에 비석을 세웠다.<sup>184)</sup>

178) 『동아일보』 1921. 5. 17.

179)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부산일보사, 앞의 책, 1983, 176쪽에는 부산진역까지 운구됐다 한다.

180) 『매일신보』 1921. 5. 17.

181) 부산상업고등학교, 앞의 책, 76쪽.

182) 김삼근편저, 앞의 책, 1982, 60쪽.

183) 『동아일보』 1921. 5. 17.

184) 『민주중보』 1946. 3. 1. 박원표, 앞의 책, 1965, 90쪽.

#### IV.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의열단원 박재혁의 생애와 부산경찰서 투탄에 대해 그간의 오류와 불일치를 바로잡아 보았다.

그간 박재혁의 부친 이름과 본적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박재혁(朴載赫)은 1895년 5월 17일 범일동 183번지에서 박광선이 아니라, 박희선(朴喜善)과 이치수(李致守) 사이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박재혁의 본적은 범일동 183번지인데, 1919년 6월 27일 범일동 550번지로 이거(移居)하여 본적을 정정했다.

박재혁이 어릴 적부터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형성되게 된 것은 개명(開明)된 부친으로부터 을미사변이나 단발령, 을사늑약 등의 부당성을, 서당의 선생님에게는 일본의 한국 병탄의 등에 대해 듣고 자랐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산의 지역적 특성, 역사적 소용돌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좌천동 소재 ‘임진왜란’ 때 부산진 전투에서 순절한 선열들을 기리는 제단인 정공단의 존재와 최익현의 운구행렬 시위를 목격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삶의 터전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형성됐다. 이와 같은 의식은 학연을 통해 더욱 성장됐다.

정공단내에 설치되었던 서당 육영재가 부산진사립육영학교, 부산진공립보통학교(1911.5)로 바뀌었다. 박재혁은 1911년 3월 부산진사립육영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같이 학교를 다닌 학생은 박재혁, 최천택, 김인태, 김병태, 전영호, 전성호, 김영주, 백용수 등이다. 1907년 국채보상 모금에 참여한 70여명의 학생 중 박재혁 외에 최천택, 김영주, 백용수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은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의 연루자였다.

1909년 1월 11일에는 여동생 박명진이 출생하고, 같은 해 12월 10일



에는 아버지 박희선이 사망했다. 어머니는 삼바느질로 재혁과 누이를 키우고 교육시켰다. 1911년 3월 22일 부산진사립육영학교를 마치고,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어서 인지, 그 다음해 1912년 4월에 부상(釜商)에 입학했다. 1915년 3월 22일 제4회로 졸업했다. 모친의 자식교육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상에 들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됐다. 동시에 장남으로서 가족 부양에 대한 고민도 같이 커졌다.

이 와중에 부상 2학년 때 최천택과 함께 『동국역사』의 등사, 배포에 참여했다. 3학년 때에는 비밀결사인 구세단(救世團)에 가담했다.

밀양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일합사와 부산의 비밀결사인 구세단은 김인태를 매개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구성원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다. 구세단은 활동을 시작한지 반년 여 만에 경찰에 탐지됐다. 그리하여 오재영, 박재혁, 박흥규, 김인태 4명이 검거되어 1주일 동안 심한 고문을 당했다. 부모들의 구명운동과 구세단을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 두 사건 이후로 박재혁과 친구들도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됐다.

부상을 졸업한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심하고,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오재영과 함께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무산됐다.

박재혁은 1916년 4월 부산 조선와사전기회사(朝鮮瓦斯電氣會社) 전차 차장으로 취직했으나 곧 해고됐다. 그 후 그는 친척인 박국선(朴國善)이 경영하는 경북 왜관역전의 곡물무역상에서 일했다.

박재혁은 1917년 6월 곡물상에서 700원을 조달해서 김인태와 상해로 갔다. 상해에 도착한 김인태는 이미 알고 있던 김원봉과 조우해서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박재혁은 상해에서 다시 싱가포르 등을 왕래하며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당초의 계획인 도미(渡美)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재혁은 1918년 6월 부산으로 돌아와 여러 달을 지내다가, 또 상해를 거쳐 싱가포르로 가서 무역업에 종사했다. 이 시기 인삼무역상들이 상해를 거쳐 싱가포르를 왕래했다. 박재혁도 주로 인삼무역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시 인삼 무역상점은 단순한 영업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다.

1919년 2월 상해에 있던 김인태가 부산의 오재영을 방문하고, 최천택은 모지(門司)로 불러 만났다. 여기서 3.1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전하고 일정한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상해에서 온 김인태가 1919년 2월 오재영과 최천택을 만나면서, 박재혁의 행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특이하다. 네 사람의 관계로 볼 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리 없지 않는가?

이와 같이 박재혁은 1917년 6월 부산을 떠나 3년 이상 상해와 싱가포르 등지를 왕래하면서 인삼 등의 무역업에 종사했다. 동시에 동지들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3.1독립만세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신심을 다져 투신하기로 결심했다.

1920년 3월 싱가포르에서 상해로 돌아와 독립운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때는 가사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1920년 4월 다시 상해로 가서 7월초까지 머물면서 김원봉과 만나 의열단에 가입했다. 의열단에 가입한 박재혁은 신입으로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혁은 1920년 7월 19일 박창수 외 1인을 동반해서 부산진구락부로 가서 최천택에게 2명을 상해임시정부원이라고 소개했다.

박재혁은 의열단의 호출을 받아 같은 해 8월 6일 세 번째로 상해로 건너갔다. 같은 해 8월 31일 김원봉으로부터 ‘부산경찰서장을 죽여 독립

운동의 기세를 높이지는 위촉'을 받고 박재혁은 이를 응낙했다. 또한 김원봉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지 확실하게 밝히고 나서 죽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의열단이 3.1독립만세운동 이후 기존의 독립운동노선에 방향전환을 촉구하고 조직됐는데,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계획이 1920년 6월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관련자 전원이 체포됐다. 이에 의열단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어 이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성 요구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는 관문이며 전형적인 식민도시로 개발됐으며, 제2의 오사카로 불렸기 때문에 상징성이 컸다. 또한 의열투쟁의 경우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와 타격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산경찰서가 타격대상으로 선정됐다.

투탄을 수락한 박재혁은 폭탄 1개와 돈 300원을 수령하고, 대마도를 거쳐 9월 6일 아침 부산으로 왔다. 폭탄은 1902년 산 러시아(露國)제로, 사이즈는 직경 2촌, 높이 4촌의 원통형 주철로 된 폭탄이었다. 폭탄의 재원에 관한 것은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1920년 9월 6일 아침 박재혁은 오재영의 집을 방문하고 손수건에 찬 폭탄을 맡겼다. 오재영으로부터 병원비 및 여비로 1000원을 받았다. 박재혁은 9월 13일까지 최천택과 김영주와 함께 동래온천, 해운대, 범어사 원효암 등지에서 쉬면서 투탄을 모의했다.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슈헤이(橋本秀平)가 고서적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역업을 하던 경험을 살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했다. 중국인으로 위장했다는 주장이 다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고서 사이에 폭탄을 숨겼다.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경 금평정(琴平町, 현 동광동) 소재

부산경찰서에 공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갔다. 하시모토 서장의 오른쪽 가까이 접근하자, 서장이 집무를 멈추고 그쪽으로 몸을 돌리려는 찰나, 자신이 의열단임을 밝히고 투탄했다.

급보를 받은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서는 오오무라검사장과 쿠보다 검사와 서기 수명이 자동차로 현장에 출두했다. 하시모토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뒤, 박재혁은 부립병원으로 후송시켰다.

하시모토서장이 사건 현장에서 폭사 당했다는 주장이나 서장 외 순사 2명을 폭살하고 서옥을 파괴, 또는 현장에서 3명이 즉사했다거나 주장들이 있지만 이점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신문과 각종 자료에는 하시모토 서장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박재혁은 1920년 11월 6일 부산지법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 그 사유가 타동적이고 폭탄이 투척됐으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박재혁에게 적용된 죄목은 부산지법의 1심부터 1921년 3월 31일 진행된 경성 고등법원의 3심까지 일관되게 ‘살인미수죄’였다. 만약 하시모토 서장이 부상후유 사망했다면 재판진행과정에서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변경 적용되었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치안이 회복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폭탄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와서 투탄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게다가 다른 곳이 아니라 부산에서, 경찰서장실에 들어온 조선인에게 폭탄을 맞는 전대미문의 대실수로 경찰서 전체가 놀랐다는 것이다. 『大阪매일신문』이나 『大阪조일신문』 등은 일선 양 민족의 동화는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요지의 비판론을 대서특필했다.

일제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50명~60명의 청년들을 검거했다. 당시 부산경찰서에는 일본인 전담 사법경찰관 와다(和田) 사법주임과, 조선인 전담 경찰관 한석명(韓錫明), 그 부하 유진후(兪鎭厚)가 있었다. 이

들 조선인 경찰관들은 박재혁 투탄 용의자들뿐만 아니라 ‘밀양 진영사건’ 관련자들도 신문했다. 또한 이후에도 일제의 충견으로 활약했다.

고문 취조에도 공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박재혁 또한 끝내 단독 범을 주장함으로써, 사건연루자로 지목된 최천택, 김영주, 오재영, 백용수, 김작치, 강필문 등은 1920년 10월 16일 기소 유예 처분으로 석방됐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관련자들의 관련혐의, 본적, 직업, 학력 및 경력, 이후 주요활동을 보면, 이들 대부분이 투탄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박재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920년 11월 2일 사형을 구형받고, 11월 6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사의 공소로 대구복심에서 1921년 2월 14일 원심이 파기되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박재혁이 상고했으나 3월 31일 경성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간에는 부산지법에서 ‘사형’, 대구복심에서 ‘무기징역’, 경성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당시는 언도)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재판관련 자료를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복심이나 경성 고등법원의 재판과정에 박재혁을 사형에 처하는 이유로 인용된 것은 ‘조선독립사상을 선전하고 민심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서장을 살해하기 위해 부산경찰서를 침입해서 투탄했다’는 것이 진술된 사범경찰관 제3회 신문조서였다.

박재혁은 사형집행 전 12일간의 단식으로 자진(自盡)했다. 즉 1921년 5월 11일(음력 4월 4일) 오전 11시 20분에 대구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문에는 그전부터 신음하던 폐병으로 옥사했다고 보도됐다.

의열단원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이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열단의 의열단원이 최초로 성공한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신념과 사생관을 명확하게 보여준 점이다.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라는 전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재혁은 목숨을 걸고 하시모토 부산경찰서장의 면전에서 투탄한데다, 체포되어 재판결과 사형을 선고 받자 단식을 결행했다. 감옥에서 단식 자진함으로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세 번째로 동지들에 대한 의리와 무한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재혁은 투탄에 앞서 동지들과 단독범행으로 약조했다. 약조하긴 쉬우나 일제의 악형을 포함한 취조과정에서 약조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혁은 끝까지 견디면서 단독범행 임을 관철시켰다. 그리하여 공범자로 체포 조사받던 6명의 동지들이 1심 재판 전에 기소유예로 석방됐다.

마지막으로 박재혁의 투탄은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이다. 3.1독립만세운동 이후 항일독립운동방향에 대한 모색이 진행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의열투쟁을 결행하기 위해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의열단에 의해 계획된 ‘제1차 국내기관총공격’ 시도가 사전에 발각되어 무산되었는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 의열단원 박재혁이 제2의 오사카로 불리는 부산, 부산경찰서에서 서장의 면전에서 폭탄을 투척한 것이었다. 이 투탄은 3.1독립만세운동 이후 위촉되어가는 항일독립운동에 불씨를 지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의열투쟁의 시발점이 됐다.

## | 참고문헌 |

### 1. 자료

『부산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제신문』 『민주중보』

『부산경찰서폭파사건』 사상월보 제1권 제5호, 『조선중대사건판결집(상)』, 1921.

2.14. (대구복심 주문과 이유 게재), 공훈전자사료관.

『피고인 朴載赫 大正10년 刑上제44호』, 1921년 3월 31일 고등법원(高等法院), 『大正10년3월 형사재판서원본』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조선총독부경무국, 『고등경찰관계연표』, 1930.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부산경찰서 폭탄투하에 관한 건』(高警 31192호) 독립운동사자료집 11 : 의열투쟁 사 자료집, 111쪽~114쪽, 공훈전자사료관

박재혁·박명진·이치수 『제적부』

박재혁·박명진 『학적부』

최철의 인터뷰, 최천택의 장남 최철 증언(2018년 9월 11일 서면 다연).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0』, 20권 임정편 V, 15 김인태 등 체포의 건

### 2. 저서 및 논문

강만길 편, 『밀양의 독립운동사』, 밀양문화원, 2003.

김영범, 『의열투쟁 I—1920년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_\_\_\_\_, 『의열단 창립단원 문제와 제1차 국내거사기획의 실패 전말-13인설 재검토와 구영필 문제의 숙고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 2017.

\_\_\_\_\_, 앞의 책 86쪽과, 『1920년 서울, ‘암살단’의 결성과 의열투쟁 기획: 미국의 의원단 내한 계기 항일의거의 신고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집, 2014.

\_\_\_\_\_, 『밀양 항일폭탄의거의 배경과 전말- 최수봉의 생애 행로와 의열단의 초기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2015.

김삼근 편저, 『부산출신독립투사집』 태화인쇄사, 1982(오택의 유고 게재).

김 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김홍주글·심점환그림, 『깊은산 먼울림』, 배달, 1993.

- 독립유공자기금운영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의열투쟁사, 1973.
- 박원표(朴元杓), 『일제에 항거한 야인 최천택』, 『부산의古今』, 현대출판사, 1965  
(최천택, 일제하의 독립투쟁기 게재).
- 박영랑편, 『박재혁의사 약전』, 『圖譜獨立血史』 제2권, 문화정보사, 1950.
-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 백양당, 1947(깊은샘 2000 복간).
- 부산광역시,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 I )·( II ), 2004.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 부산일보사, 『어둠을 밝힌 사람들』, 1983.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독립운동사』, 1996.
- 사단법인3.1동지회 편, 『부산경남3·1운동사』, 1979.
-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71.
- 신규수, 『구영필의 독립운동과 국내자료분석』, 『역사학연구』51, 2013.
- 안덕자, 『박재혁 -적의심장에 폭탄을 던져라』, 호밀밭, 2018.
- 염인호, 『김원봉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 2002.
- 오영섭, 『한말순국·의열투쟁-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11.
- \_\_\_\_\_, 『제4장 의열단과 의열투쟁』,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독립운동기억과 기억의 현장』, 선인, 2011 .
- 新井田良子, 『草梁의丘』, 新幹社, 1999.



| Abstract |

The life of Park Jae-hyeok, Euiyeoldan Member and the  
Bombing of Pusan police station by him

Park, Chul-Kyu

Jae-hyuk Park was born as the only son in 183 Beomil-dong on May 17, 1895. At the age of 15, his father passed away and he lived with his mother and sister. On March 22, 1911, he graduated from Busanjin Primary School, and on March 22, 1915, he was the fourth graduate of Busan Public Commercial School.

While attending Busan Public Commercial School, Jae-hyuk Park secret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Dongguk History』 with Cheon-taek Choi, Byeong-tae Kim and Hong-gyu Park. In his third grade, he formed Gusedan(救世團) with Cheon-taek Choi, Byeong-tae Kim, Hong-gyu Park, and Jae-young Oh, and issued a noticed to promote national identity in Busan and the whole region of Gyeongsangnam-do Province.

Jae-hyuk Park left Busan in June 1917 to Shanghai and Singapore for more than three years to work in the trade industry. At the same time, he was seeking ways to contribute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while interacting with his companions. He then decided to devote him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Busan Police Station was targeted as the attack aft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when Euiyeoldan had been organized by declaring the change of direction to the existing independence movement, and it was when everyone involved was arrested upon failure of the first national full-scale attack plan in June 1920. As a result, Euiyeoldan needed to achieve results and reverse the situation in a short time.

Busan was also a gateway from Japan to Joseon and was developed as the typical colonial city, and had its symbolism as it was called as the second Osaka.

In preparation for the rebellion, Jae-hyuk Park obtained information that Hashimoto, the Busan police chief, liked ancient books and disguised himself as the Chinese ancient book dealer by taking advantage of his experience in trade business.

At about 2:30p.m. on September 14, 1920, he entered the Busan Police Station pretending to be on duty, approached chief Hashimoto from the right side and threw a bomb after declaring himself as a member of Euiyeoldan when the chief turned his body towards him.

At that time, chief Hashimoto was slightly injured. Jae-hyuk Park was arrested at the scene after failing to escape due to his injury.

Jae-hyuk Park was consistently charged with 'attempted murder' from the first trial of the Busan District Court to the third trial of the Gyeongseong High Court on March 31, 1921.

Jae-hyuk Park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t the Busan District Court. However, the appeal by the prosecution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at the trial at the Daegu High Court, and Jae-hyuk Park was sentenced to death. Eventually, Jae-hyuk Park was sentenced to death as his final judgment on March 31, 1921 after the third trial of the Gyeongseong High Court.

Jae-hyuk Park suffered from lung diseases due to tortures after arrest and injuries from the bomb, but his spirit was never thwarted. He died in Daegu prison at 11:20a.m. on May 11, 1921 before the execution.

**Key words** : Jae-hyuk Park, Cheon-taek Choi, Jae-young Oh, Dongguk History, Gusedan, Euiyeoldan, Busan Police Station